



[뉴스] 렌탈시장 20년 매년 11.5% 급성장 시장규모 40조 눈앞 03



코스피	2258.91 (0.00)	코스닥	761.94 (0.00) (15일)
금리 (우대금)	2.06 (+0.01)	환율 (원/달러)	1127.90 (-6.00) (14일)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1년 새 85% 사라졌다

(282개→41개)

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④ 재벌개혁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김상조위원장 취임 1년 순환출자 해소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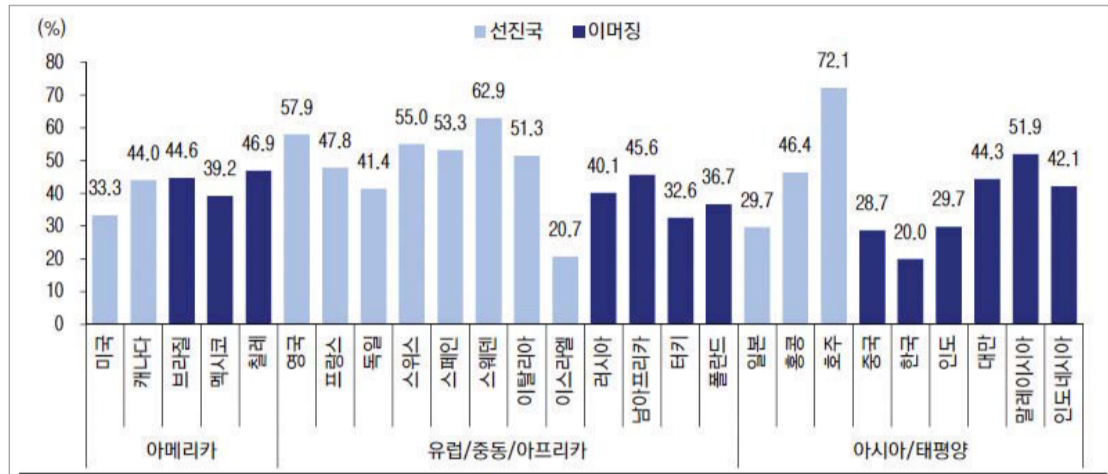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개선 탄력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정책이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대기업 집중이란 역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장사의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국내 증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출범부터 이러한

(글로벌 주요국 배당 성향)



주:MSCI 기준, 포함 국가는 전세계 시가총액 대비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자료: Thomson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경제력 집중의 비효율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하는 ‘순환’ 출자 해소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282개에 달하던 57개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는 41개로 감소했다. 2013년 7월 (9만 7658개)과 비교하면 5년 새 99.96%가 감소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1년 사이 241개(85%)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이는 대기업이 정부정책과 발맞춰 빠르게 순환출자를 해소한 덕분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2013년 9만 5033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일거에 해소했다. 지주사를 만들고,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던 계열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지주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을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 등도 올 들어 지주회사 전환, 자본매각 등을 통해 남아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끊었다.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 대부분은 향후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지배구조 재

편안을 통해 남은 4개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고 전했고, 현대중공업도 남은 1개를 올해 안에 해소할 계획이다. 삼성 역시 남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조만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8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에는 기존 순환출자고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주식 처분을 통한 순환출자 해소보다는 한 발 물러선 수준이지만 의결권 제한 조치로 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순환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압박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지난 달 30일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칙을 말한다. 가령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로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면 기관투자자는 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노숙과 사측의 입장 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매 해 주주권 행사 범위가 커지는 만큼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 추진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5%포인트(p)가 높아지면 코스피는 16.9%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배당성향은 20.0% 수준인데 이머징 국가의 배당성향이 34.6%임을 고려한다면 배당성향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

“내달 평양서 비핵화·종전선언 발걸음 내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다음달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남북간 경제교류가 본격적 재개되면 북과 만나는 경기·강

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제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 철강공동체’를 창설했고 이 공동체는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동북아 6개국에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

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소한 170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더해 나온 수치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총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었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체감실업률 12% ‘사상 최대’ 제조업취업자 4년 만에 최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체감실업률은 23.2%

체감실업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급감했고, 청년층이 느끼는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1.6%였다가 2016년에 11.2%로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11.4%로 반등했고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업자 외에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들거나 취업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이들까지 포함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한 이들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실

업률과 구직자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고용보조지표3이 이를 보완하는 지표인 셈이다. 고용보조지표3이 집계 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2분기 들어 23.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21.6%에서 올해 1분기 22.9%로 오른 뒤 2분기 연속 상승세다. 통상 체감실업률이 1분기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아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사람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 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에 443만 2000명을 기록한 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의복과 식료품 등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제조업 전반의 경기 둔화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보릿고개’ 조선업, 올 수주 훈풍에 2년후 장밋빛 기대

현대중·삼성중·대우조선해양
매출 위축·영업실적 악화 지속

상반기 수주량 글로벌 1위 탈환
내년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 전망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은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2분기 실적악화 속에 후반기까지 인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수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년 뒤에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조3257억원, 영업이익 2294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32.7%, 65.5% 감소하면서 실적 악화를 벗어나진 못했다. 당기순이익도 83.6% 감소한 2062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강재가격 인상과 인건비 증

가 등 원가상승 요인과 선박가격 정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선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에 휩싸인 가운데 실적 면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쟁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 각각 1757억원과 100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지속된 데다 희망퇴직에 따

른 위로금 661억원이 반영됐으며 공사손실충당금 역시 2331억원으로 1분기보다 많아졌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시추선 관련 손실, 환입 등으로 390억원의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분기(478억원)보다 적자폭이 증가했다.

여기에 철강업계가 조선용 후판 가격을 올 하반기부터 인상해 조선업계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반

기별로 진행되는 협상을 통해 조선용 후판 가격을 인상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체와 올 하반기 후판 가격을 1톤당 5만~7만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후판 가격은 1톤당 60만원대 초반에서 60만원대 중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후판은 배를 건조할 때 주로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선박 제조원가의 15~20%를 차지해 조선업계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다만 국내 조선 빅3가 실적 악화 속에서 반등을 위해 수주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수주 1위를 재탈환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234만CGT(441척) 중 한국이 496만CGT(115척) 40%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439만(203척)CGT, 총 36%를 따내 3년 만에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줬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올해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6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138만CGT(63척)로 전달 139만CGT(54척)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상반기 누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748만CGT, 2017년 1131만CGT, 2018년 1234만CGT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가 2년 뒤부터 핑크빛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조선업계의 실적 악화는 지난 2016년까지 이어진 수주 부진에서 비롯됐다. 선박을 수주하면 2년여간 설계를 한 뒤 조선소 현장에서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016년 수주 부진 여파로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올해부터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릿고개’를 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

(단위: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	◇◇◇	전세계 (한국제외)	0000.00.00	제품 출시 후 00년	000	00	임상2상
○○○	◇◇◇	미국	0000.00.00	0000.00.00	000	00	임상1상
○○○	◇◇◇	중국	0000.00.00	종료기간 없음	000	00	임상3상
합계					0,000	000	

*외화금액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환율로 환산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강화된다

신약 실패·연구개발비 내역 등
투자위험 관한 내역 상세 기재
3분기 사업 보고서부터 적용

오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제약과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할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제약·바이오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증했지만 이들 기업의 중요 정보나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먼저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 라이선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들 간 중요 정보 파악과 비교가 쉽도록 기재항목들을 명시한 서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신약 등 연구개발실적은 기재방식을 정형화한다. 진행 총괄표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다음 각 품목별로 진행경과와 경쟁제품, 시장규모도 기재해야 한다.

연구개발이 끝난 신약에 대해서도 현재 유통계약과 맺고 있는지, 판매가 중단됐는지 등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그간 임상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능력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인력은 구성, 특징 등은 물론 주요경력

과 연구실적 등도 기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회계처리 방법을 공시하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무형자산(개발비)과 판관비, 제조경비와 함께 회사별로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정부보조금 금액도 명시한다.

중요계약은라이센스아웃, 라이선스인 등 종류별로 구분해 금액과 계약조건, 회계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 중 ‘II. 사업의 내용’에서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및 ‘10. 연구개발활동’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은 10%에 불과 ▲핵심 연구인력 및 그간의 연구실적을 확인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및 결과발표(논문, 학회) 여부 확인 ▲타사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확인 등을 챙겨봐야 한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라이선스아웃은 ▲총 계약금액을 모두 수취할 가능성은 낮음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Upfront payment) 비율 확인 ▲라이선스아웃 계약상 대기업 확인 등을 유의해야 하며, 라이선스 또는 신약기업인수는 ▲신약의 임상시험 단계 ▲이미 지급한 금액은 신약 실패 시에도 반환받기 어려움 ▲계약금액(또는 인수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후속 출시자는 시장 침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진입 기업들의 증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1위 탈환한 롯데케미칼, 하반기 설비투자 ‘집중’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1.36조원
LG화학 제치고 업계 1위 되찾아
에틸렌공장 증설로 경쟁력 강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경쟁사인 LG화학을 따돌리고 업계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을 비롯한 범용제품 판매가 급증하며 영업이익 상승세를 이어간 덕분이다.

롯데케미칼은 올 하반기에도 집중 사업 분야인 ‘에틸렌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까지 여수에 위치한 에틸렌 공장을 약 20만톤 규모로 증설한다.

15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6620억원, 2분기 7013억원을 각각 기록, 총 1조363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쟁사인 LG화학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3541억원으로, 롯데케미칼이 업계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

롯데케미칼은 범용제품에 대한 투자를 늘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등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케미칼은 올 하반기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계획이다. 실

제 최근 롯데케미칼은 ‘2017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적시적소의 투자결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생산운영 지속을 특히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의 대표적인 과제는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수 에틸렌 공장 증설 프로젝트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해부터 총 2530억원을 공장 증설에 투입, 올해 말까지 20만톤 규모의 공장 증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수공장 내 에틸렌 공장은 2000년에 1차, 2012년에 2차 증설을 진행해 올해 3차 증설을 거친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여수 에틸렌 공장의 공장 생산능력은 초기 대비 약 350%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롯데케미칼 측은 설명했다.

여수 공장과 대산공장까지 포함하면

롯데케미칼의 국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230만톤으로 확대된다.

해외사업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짓고 있는 ‘에탄크래커 및 에틸렌글리콜’ 공장이 관심사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업체로는 최초로 2016년 6월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에탄크래커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12월까지 60%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했고 올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을 포함해 우즈베크 공장, 말레이시아 타이탄 공장, 미국 에탄크래커 공장 등 해외 생산력까지 더하면 롯데케미칼은 총 45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국내 1위, 글로벌 7위 규모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금감원,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모형’ 선보여

ADB 워크숍에서 STARS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내 감독 및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워크숍에서 ‘전 금융권역 대상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미나에 이어 국제기구를 통해

금감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설명하는 두 번째 자리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중채무자의 부도 전연효과 추정 방법론’을 추가해 발표했다. 국내 가계부채의 악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부실로 여러 권역의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거래

차주 중 33.7%가 비은행을 동시 거래 중인 다중채무자다.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이 부실해지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 대출 부실로 이어져 은행은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금감원은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모형의 글로벌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생활가전 렌탈시장 20년, 2016년부터 매년 11.5% 급성장

정수기서 車·의료기기까지... 총 시장규모 40조 눈앞

코웨이, 작년 렌탈 매출 2조 돌파
소비축소 불구 '스마트소비' 늘어
'공유형 렌탈' 새 소비트렌드 부상
VR·AR 디바이스, 드론도 빌려써

“110만원짜리 정수기를 월 2만7000원에 렌탈할 수 있도록 생산원가를 줄이려고만 했다면, 결국 렌탈서비스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2만7000원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렌탈서비스는 화려하게 꽃을 피울수 있었다.”

윤석규 웅진그룹 회장이 올해 초 펴낸 두 번째 자서전 '사람의 힘'에서 1989년 당시 웅진코웨이(현 코웨이)를 설립한 뒤 정수기 등의 렌탈사업에 처음 뛰어든 때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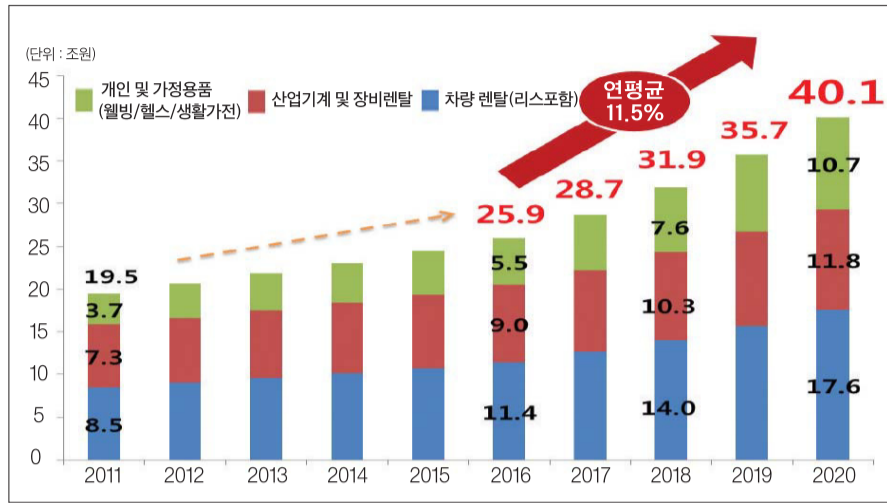
윤 회장은 정수기를 목돈이 아닌 매달 돈을 내고 렌탈을 통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든 주인공이다.

지금은 남의 회사가 됐지만 윤 회장의 품을 떠난 코웨이는 렌탈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는다. 내년이면 코웨이는 설립 30주년이 된다.

2005년 당시 9000억원 수준이었던 코웨이의 렌탈 부문 매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생활가전 방문판매 1위 기업이 정수기, 비데 등을 비롯한 렌탈시장의 급성장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관련업계와 KT경제경영연구소

〈국내 렌탈시장 규모 추이(2011~2020년)〉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ICT로 진화하는 스마트 렌탈 시장의 미래'

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규모는 2020년엔 40조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9조5000억원에 그쳤던 관련 시장이 10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2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3년 당시 2016년 기준 국내 렌탈시장 규모를 약 25조9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렌탈시장이 급성장할 요인이 곳곳에서 등장하며 이를 상향 조정했고, 결국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40조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상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재필 연구원은 'ICT로 진화하는 스마트 렌탈 시장의 미

래' 보고서에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높이는 '스마트'한 소비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면서 "필요한 만큼 빌려쓰는

'공유형 렌탈'이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렌탈 소비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웨이 등이 '할부'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제품을 고객에게 렌탈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대기업, 중소기업, 사물인터넷(IoT) 벤처기업, 개인까지 가세해 '렌탈·공유플랫폼'을 통해 훨씬 더 다양한 제품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공유경제가 렌탈 시장을 급성장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렌탈시장은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용품, 차량, 산업장비, 사무기기, 의료기기 등에서 최근엔 IoT기기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전세계의 IoT 기기는 약 64억대에 달했지만 이 숫자는 2020년엔 208억개로 4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관련 각종 디바이스를 비롯해 드론, 스마트워치 등 IoT 기기를 렌탈하

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DMM닷컴의 경우 VOD, CD, DVD, 의류, 아기용품 등을 렌탈하다 최근엔 드론, VR기기, 스마트워치 등으로 취급 품목을 늘리고 있다. 일본 NTT도코모는 지자체와 손잡고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자전거 렌탈 사업도 이미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서울시의 '따릉이'도 공유형 렌탈의 하나로 꼽힌다.

물론 생활가전 등 전통적인 렌탈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당시 9034억원이었던 코웨이의 렌탈 매출은 1조2540억원(2010년)→1조5939억원(2013년)→1조8307억원(2015년)→2조11억원(2017년)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제로페이 참여 협약기관 현황〉

(2018.7.25자 기준)

구분	참여기관 및 단체
정부 및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민간기업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신한, 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판매자 단체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

/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

“신용카드보다 혜택 많아야 선택 제로페이, 별도 소득공제 부여를”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과 전망

제로페이 등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활성화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노용관 연구원은 15일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선 선택권을 보유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원활한 도입을 위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QR코드를 활용한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소비자 계좌에서 직접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 방식에 기반을 둔 가맹점 수수료나 밴(VAN)사 사용료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의 은

행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도입키로 했으며, 관련 기술 표준 개발과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 중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로페이(가칭)'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로페이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공제율 40%)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노 연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QR코드 활용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부여 등 세제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성미 기자 smnhm@

당신의 봄

엄마가 RC가 되고부터,
아침밥상에 봄이 왔어요

우리 집 아침 풍경이 달라졌어요
따뜻한 찜개가 보글보글 끓고
아빠 콧노래를 불러요

아침 일곱시, 모두가 바쁘는데
모두가 즐거워요
웃음꽃이 피어요
아침 밥상 위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삼성화재 RC와 함께
인생의 봄을 만드세요!

삼성화재 RC 모집

삼성화재 RC란? 리스크 컨설턴트(Risk Consultant),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관리하는 전문금융인입니다.

서울 강북권 070-7111-3202 | 서울 강남권, 강원권 070-7111-3206
서울 강서권, 인천권 070-7111-3201 | 경기권 070-7111-3207
충북, 충남권 070-7111-3208 | 전북, 전남, 제주권 070-7111-3204
부산, 경남권 070-7111-3203 | 대구, 경북, 울산권 070-7111-3205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게임할 때 데이터가 공짜? 이통사 '제로레이팅' 바람

〈특정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제도〉

게임사와 협력해 데이터 요금 부담 갤럭시노트9 출시 기점으로 붓물 콘텐츠시장서 이통사 영향력 우려



청소년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문제는 데이터다. 따로 와이파이를 통하는 곳이 아니면 데이터 소비량이 늘어나 요금 부담이 크다. 고화질의 게임일수록 소비하는 데이터도 많다.

이러한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게임 업체가 데이터를 매개로 협력에 나서고 있다. 특정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따로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을 통해서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비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내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돌풍을 일

으킨 나이언틱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에 소요되는 데이터 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아 이슈가 된 이후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출시를 기점으로 붓물 터지듯 나오

고 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13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한 갤럭시 노트9에 탑재된 게임 4종 실행 시 플레이에 소모되는 데이터가 과금 되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였다.

KT 갤럭시 노트9을 이용하면 단말에 탑재된 '피파온라인 4M', '검은사막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오버히트' 실행 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게임 플레이 데이터 과금 면제는 올해까지 적용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월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5G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제로레이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에 맞춰 제로레이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셈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부터 게임사와 협력해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내달부터는 1020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영(0)'을 출시한 이후 중고생 고객이 게임, 커뮤니티, 포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차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넷마블, 네오위즈, 헝그리앱, 김급식, 스노우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를 즐기는 데 쓰는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입수한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

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주로 게임사와 협력해 내는 이유는 최근 고사양 모바일 게임이 다양하게 출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사양 게임의 경우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 입장에서 사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사 게임 신작 홍보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콘텐츠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대형 게임을 제외한 중소 게임·콘텐츠 업체가 소외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업계 첫 5G 표준 멀티모드 모뎀 개발

삼성전자 '엑시노스 모뎀 5100' 5G 모바일 상용화 앞당겨질 것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 표준(5G NR 릴리즈-15)을 적용한 멀티모드 통신 칩인 엑시노스 모뎀 5100(사진)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단말기의 OTA 송수신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모뎀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OTA 시험은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무선 통신을 확인하는 테스트다. 이번 시험은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개발용 단말기와 5G NR 기지국(3.5GHz 대역)을 활용해 진행됐다.

삼성전자의 이번 송수신 시험 성공으로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5G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품은 하나의 칩으로 5G뿐 아니라 각 세대별 이동통신 규격(GSM/CDMA, WCDMA/TD-SCDMA/HSPA, LTE 등)까지 지원하는 '멀티모드' 방식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5G 통신환경인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4G 제품보다 1.7배 빠른 최대 2Gbps의 데이터 통신속도를 지원하며, 초고주파 대역(밀리미터파)에서도 5배 빠른 6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한다. FHD 고화질 영화(3.7GB)를 5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소비자들은 향상된 모뎀 성능을 통해 초고화질 영상이나 가상현실(VR), 홀로그램, 자율 주행 등 대용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4G 통신환경에서도 1.6Gbps의 속도를 지원해 한층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2세대 10나노 첨단 공정이 적용되어 소비전력도 줄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3.5GHz 5G NR 기지국을 공개한 데 이어 업계 최초로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5G 모뎀을 개발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 올해 말부터 엑시노스 모뎀 5100과 함께 모뎀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 솔루션(RFIC, ET, PMIC 등)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갤럭시노트9 팬과 즐기는 '갤럭시 팬 파티'

부산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 개최 입소문·호평에 열흘 간 2만명 신청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 국내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팬 파티를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갤럭시 S9 출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갤럭시 팬 파티'는 소비자들의 호평과 입소문을 타며 지난 8월 1일부터 약 열흘 간 2만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했다.

14일 부산 청사포에 위치한 카페 라벨라치타에서 막을 올린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노트9의 새로운 기능과 강력한 성능을 함께 직접 체험해보고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갤럭시 노트9 사용자의 프리젠테이션, 서바이벌 퀴즈쇼, 갤럭시 팬 라이브 등을 통해 갤럭시 팬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했다. 블루투스 기능 탑재로 원격 제어를 가능하



부산 해운대구 라벨라치타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 in 부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포토존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노트9'의 '스마트 S펜'을 이용해 셀피를 찍는 모습. /삼성전자

게 해주는 '스마트 S펜', 촬영 장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색감을 조정해주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4000mAh 대용량 배터리 등 갤럭시 노트9의 강력한 성능을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체험할 수 있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행사는 앞으로 2주 동안 광주(8월 15일, 커뷰), 대전(8월 17일, 롱디커피), 대구(8월 18일, 빌리웍스), 서울(8월 23일, 24일, 바이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지엠, 친환경車 20종 개발 박차

2023년까지 '제로 이미션' 출시 예정

한국지엠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쉐보레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현재 20명인 개발팀 인원을 더 늘릴 것이며 오는 2023년까지 20종 이상의 친환경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전기차 개발총괄 권성진 부장은 "오는 2023년까지 20개 차종 이상의 '제로 이미션'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며 볼트EV의 양산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김형민 한국지엠 구동개발 팀장은 "대부분 전기차는 피엠(PM)모터를 쓰고 있다. 효율이 높고 통제가 쉽다"며 "전기차 배터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우 기자

김 팀장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는 배터리 부피가 커서 차체의 성능과 실내공간에도 영향을 줬지만 한국지엠이 최근 개발한 배터리는 부피를 줄이고 티자형으로 설계돼 바닥배치가 가능해졌다. 배터리를 차 바닥면에 깔면서 차체가 넓어졌고 충격 흡수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의 볼트EV는 10.2인치 가로로 넓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 지엠은 고객이 스마트폰과 연결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고객 맞춤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시스템을 총칭하는 장치다. 차 안에서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TV나 내비게이션, 다양한 오락거리 등을 포함한다.

LG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 판매량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대형 OLED 판매 실적이 130만대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60만여대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다.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있는 55, 65, 77인치 패널 모두 판매가 고무 증가했다.

OLED 패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TV업체들이 OLED가 주는 가치를 인정해 OLED TV 진영에 속속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LG전자를 시작으로 일본 소니·도시바·파나소닉, 유럽의 필립스·그룬디·뢰베·메츠·베스텔·뱅앤올룹슨(B&O) 등 유수의 업체가 OLED TV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하이센스가 합류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LED는 블랙을 표현해 LCD가 결코 구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명암비를 자랑한다. 풍부하고 정확한 색표현과 LCD보다

대형 OLED패널, LG디스플레이가 '평정'



LG디스플레이 65인치 CSO(Crystal Sound OLED) 제품 이미지. /LG디스플레이

100배 빠른 응답속도 등 전반적인 화질 측면에서 OLED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인정받고 있다고 LG디스플레이 측은 설명했다. 또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백라이트가 필요없고 초박형 구현이 가능해 투명, 플렉서블, 벤더블과 같은 미래형 제품 구현에 최적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OLED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선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판매량 증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형 OLED 사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후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건강한 할인’... 많이 걸을수록 통신비 깎아드립니다

SK(주) C&C-SK텔레콤-AIA생명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 출시

6개월 동안 최대 7만2000원 할인
“단순 할인 넘어 건강한 습관 유도”

SK(주) C&C와 AIA생명 및 SK텔레콤 등 3사가 소비자들이 걷기목표를 달성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Vitality)’ 서비스를 출시한다.

SK텔레콤은 AIA생명, SK C&C와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 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SK(주) C&C는 지난해 11월 AIA생명과 ‘AIA 바이탈리티’의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이후 사용자 신체 특성·생활습관·건강정보 등 빅



SK텔레콤 서성원 MNO 사업부장(왼쪽부터), AIA생명 차태진 대표, SK C&C 안정욱 사업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 설계·개발은 물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이달 24일 출시 예정인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는 SK텔레콤 고객이 바이탈리티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후 주간 미션(주 단위 걷기목표)을 달성하면

매주 3000원, 월 최대 1만2000원씩 총 6개월간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통신요금할인 혜택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매주 스타벅스 커피 1잔, 뮤직메이트 400회 음악듣기, 영풍문고 4000원 상품권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주간 미션은 최초 주당 250포인트 이상이면 달성되며, 직전 3주간 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50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된다. 일 7500보 이상 시 50포인트, 일 1만2500보 이상 시 100포인트가 부여돼 3~5일이면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심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이 보통 하루에 걷는 걸음은 6000보 내외다. 하루 최소 미션인 7500보는 평균 도보량에서 하루 약 15분 정도를 추가로 걸으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의 다양한 마케팅을 맡는다. SK(주) C&C는 한국인의 생활 및 소비 패턴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

의 개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AIA생명은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순한 할인혜택을 넘어 고객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 하도록 유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사는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10년 통신비 지원’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8주동안 주간 미션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씩 총 8명에게 10년 치 통신비에 준하는 12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SK(주) C&C는 향후 인공지능 ‘에이브릴’과 접목해 개인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건강관련 O2O 서비스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3N’ 조용한 성적표... IP 덕에 엔씨만 ‘선방’

(지식재산권)

게임사 2분기 실적 마무리
넷마블·넥슨, 영업이익·수익성 주춤
엔씨소프트, ‘리니지M’ 好실적 견인



국내 ‘빅3’ 게임사로 ‘3N’으로 불리는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올 2분기 주춤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나마 자사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인기를 등에 업은 엔씨소프트는 유일하게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대형 게임 3사의 누적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2조 9625억원 보다 늘어난 3조 2865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지만, 올 2분기 성적은 영업이익이 감소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넥슨과 넷마블의 경우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주춤했다. 지난 9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넥슨은 올 2분기 영업이익 1582억원(엔화 160억엔)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수치다. 넷마블 또한 영업이익이 62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40.8% 감소했다.

반면, 지난 14일 실적을 발표한 엔씨소프트는 올 2분기 매출 4365억원, 영업이익 159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무려 32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실적을 이끈 핵심동력은 ‘리니지M’이다. 리니지M 등 모바일게임이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했다. 엔씨소프트가 밝힌 제품별 매출 비중은 모바일 게임 2099억원, 리니지 421억원, 리니지 2 133억원, 아이온 156억원, 블레이드&소울 306억원, 길드워2 199억원이다. 모바일 게임 별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리니지M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리니지M은 지난해 6월 출시해 첫날부터 이용자 210만명, 매출 107억원을 기록했고, 대만 진출 이후 현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도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초반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경험이 부족하고, PC 리니지의 이용

자가 모바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1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회사의 매출을 끌어오고 꾸준히 유입되는 이용자가 많아 장기 흥행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재수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리니지M의 해외 버전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3분기에는 리니지M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넷마블 또한 하반기 신작 게임을 공개하고 기존 인기 게임을 업데이트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넥슨은 ‘던전전애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스테디셀러들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업고 올해 이후 ‘메이플스토리2’를 서구권 시장에 출시하고, ‘오버히트’의 글로벌 서비스, ‘진·삼국무쌍: 언리쉬드’의 일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넷마블 또한 ‘일곱 개의 대죄’, ‘요괴워치’ 등을 올해 일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은 추가적인 콘텐츠를 개발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할 예정이며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세븐나이츠2’, 모바일 어드벤처 RPG ‘팬텀게이트’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하만 카돈 첫 협업 사운드바 출시



삼성전자는 명품 오디오 브랜드 하만 카돈이 협력해 만든 사운드바가 처음 출시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하만 카돈 브랜드로 처음 선보이는 플래그십 사운드바 HW-N950(사진)은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탑재했다. 네 개의 스피커만으로 일반 가정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최대 채널인 7.1.4음향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7.1이란 기존 서라운드 스피커(프론트, 센터, 서라운드)수다. 가운데 1은 리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파워 서브우퍼의 수이고 마지막 4는 돌비 애트모스 지원 모듈에서 천장 또는 위로 향하는 스피커 수

를 나타낸다. 돌비 애트모스는 돌비의 최신 음향 기술로 머리 위 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에 소리를 움직임에 따라 정확히 배치해 실제와 같은 사운드로 생각하고 강렬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HW-N950은 8월말 한국과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 호주, 동남아, 중남미 등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출고가 기준 가격은 180만원이다. /안병도 기자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13곳 재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로 13개 업체를 재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위탁판매업체 선정 공고를 통해 접수된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재무상태(15점), 서비스 제공 능력(65점), 고객불만 처리능력(20점) 등

을 평가(정량평가 90점, 정성평가 10점)하여 신규업체 4개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머천드코리아, 서경방송, 세종텔레콤, 스마텔,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와이엘랜드, 위너스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제주방송, 큰사랑, 한국케이비텔레콤이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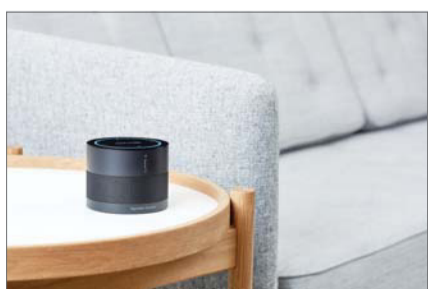
휴대성 높은 AI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

KT 9만9000원·1인족 등 겨냥
생활편의·리모콘 기능 등 적용

KT는 16일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가지니 버디는 집안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다. 하만카돈 스피커와 KT의 음성인식 기술로 품질을 높였고 합리적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갖고 싶은 1인 가구나 주부, 학생 등에게 유용하다.

한 손에 잡히는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너비 85mm×높이 65.5mm×무게250g)로 이동성을 높였다. 4개의 마이크를 탑재해 360도 어떤 각도에서도 쉽고 정확한



KT는 16일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집안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기가지니 버디 모습. /KT

음성인식이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의 방향에 LED 불빛이 들어오는 기능을 추가해 기능성과 세련미를 보여준다.

기가지니 버디는 대화와 음악, 정보 등 기가지니의 AI 서비스가 기본이다. 여기에 팟캐스트 등의 미디어 서비스, 요리레시피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와 올레 tv와 연동시 채널, 볼륨제어 등 리모콘 기능도 제공된다.

기가지니 버디는 KT액세서리샵 및 G마켓, 옥션, 롯데닷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선착순으로 10만원 상당의 지니뮤직 1년 이용권과 판매 가격을 1만원 할인하는 출시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말 가격은 9만9000원이며, 통신사에 관계 없이 구매 후 와이파이에서 연결하면 사용 가능하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강사: 김나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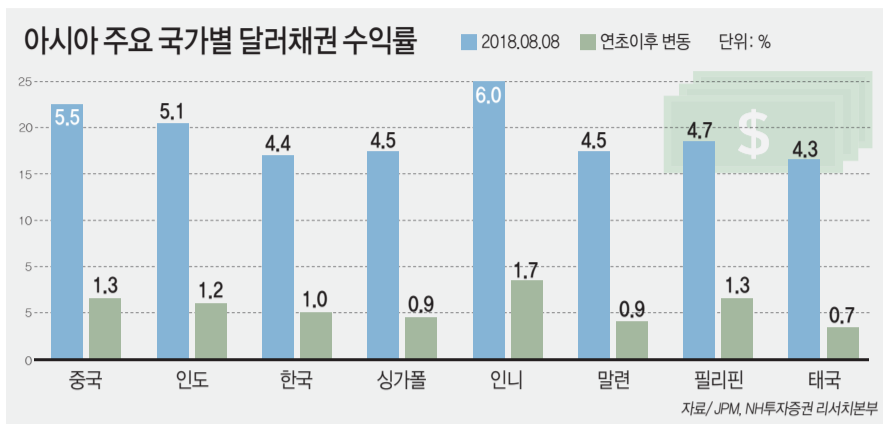
글로벌 핫머니 '韓채권' 사재기... 外人 발빠면 '빨간불'

(단기투자자금)

외국인 투자 188억달러 증가
외환보유 4024억달러 버퍼 역할
韓美 금리차 확대 완충역할 기대

글로벌 핫머니(단기 투자 자금)가 단기채권 위주의 한국 채권을 싹쓸이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 '큰손'인 미국 프랭클린템플턴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원화채권 비중을 줄이자 외국인 이탈을 걱정했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채권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한동안 재정거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자금이 단기 이벤트에 취약한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프랭클린템플턴 마저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 회수기간)을 짧게 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1001억 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인 채권투자를 늘려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187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식투자는 8억 6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금융센터 홍서희 연구원은 "만기 3년 이하 국채 투자자금은 2016년 급격히 유출된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최근 원화채를 매수하는 주요 외국인 주체 가운데 국부펀드와 중앙은행계 자금도 상당하다. 외국인의 원화채 수급 안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부펀드로는 노르웨이 연기금(GPFG)과 싱가포르 투자청(G

IC),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투자청, 중국 CIC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체력이 아직은 외풍에 버틸만 하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포함한 36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7월 외환보유액'은 4024억달러다. 외환보유고는 외풍의 버퍼 역할을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건조한 경상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한미 금리차 확대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점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P모건은 "한미 금리차가 확대(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019년까지 150bp(1bp=0.01%포인트)까지 올리면 금리차가 100bp를 상회할 가능성)된다면 최근 유입자금이 유출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규 채권 투자자금이 지난 2016년과 같이 둔화할 경우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내년 말까지 90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터키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달러 강세도 걱정이다. 달러가 오르면 해외 빚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외채무는 4339억달러로 151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05억달러다.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미 달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은 지난 14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계양을 유도해 광복 의미를 되새기고자 '태극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경남은행

BNK경남은행 광복절 '태극기 나눔 행사' 열어

BNK경남은행은 지난 14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계양을 유도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태극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15일 밝혔다.

김갑수 상무와 울산지역봉사대 40여명은 울산 롯데백화점 일대(울산 삼산동 소재)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줬다.

무료로 배부한 태극기는 모두 500세트로 국기 계양과 보관이 용이하게 태극기·깃대·무궁화봉·국기함 등으로 구성됐다.

김갑수 상무는 "73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기념해 울산 시민들에게 태극기 계양 유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 태극기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광복절뿐만 아니라 기타 국경일도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거는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광복을 위해 헌신한 지역 출신 애국지사를 조명하기 위해 경남동부보훈지청과 함께하는 '우리 고장애국지사 알리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KEB하나은행 축구 국대 아시안게임 응원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및 K리그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승리를 지원하는 손님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승리기원 이벤트는 KEB하나은행 전속모델이자 대한민국 축구 간판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다.

먼저 오는 24일까지 '오! 필승코리아적금 2018'에 신규 가입하는 손님 전원에게 손흥민 선수 이모티콘을 제공한다.

또한 15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경기 및 토너먼트 경기 일정에 맞춰 SNS를 통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 이벤트와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

도 진행한다.

KEB하나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하나금융그룹 페이스북, K리그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스코어 맞추기에 성공한 손님에게 손흥민 선수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다.

KEB하나은행 리테일마케팅부 관계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큰 감동을 주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여정을 손님과 함께 응원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지속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아프고 나서 보험가입? 보험료 '인상' 부른다

실손보험 보험의 역선택 현상 증가
손해율 100% 넘어서 보험료 인상

#.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직장인 A씨(30)는 최근 허리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담당의사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비급여로 책정되는) 허리디스크 치료비용이 만만찮으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이었다. 병원은 A씨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허리디스크 관련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고, A씨는 실손보험 가입 후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6%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을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419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87만 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0%포인트(131.3%) 개선된 반면 2011년 93.6%와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가량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보험의 '역선택'이 꼽힌다. 일부 질병의 경우 자가진단만으로도 발병 유무를 알 수 있게 되거나 병원을 찾더라도 병원 측에서 고의로 진단기록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 선진단 후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

는 약속이나 수작)를 한 경우 보험사에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보험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전 성별, 연령 외에도 최근 진단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병원과 환자가 말을 맞춘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면서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한방치료와 치과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히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원과 낸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환자의 잘못된 판단이 실손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손해보험 폐지수집 어르신에 안전용품 전달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경동시장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반짝반짝 캠페인'을 열고 안전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들의 심의 심야·새벽 시간대 안전한 이동을 돕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손보 사장님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형원 경동시장 사장, 허덕조 동대문구 폐지수집 대표, 오광수 경동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KB손보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조끼, 단디바와 함께 폭염 속 무더위를 달래줄 보냉가방, 부채 등 총 800개의 물품을 전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단단히"의 경사도 방한 '단디'를 붙인 단디바는 어르신들이 이동 시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부착하는 야광 반צל로,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종희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관계자들이 '반짝반짝 캠페인'을 열고 안전용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전달식 후에는 폐지수거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희주 기자 hj9@



KB 금융그룹

월드클래스 환전 혜택!



2018 KB SUMMER 환전 EVENT 환전도 역시 KB국민은행



YES 1. 시원~한 환율우대

Liiv(리브) 환전 이용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JPY+EUR 80% / 기프트콘+모바일지갑 포함

KB네트워크환전 / KB서울역환전센터 / 외화ATM (USD only) 이용 시
최대 80% 환율우대



YES 2. 기분 좋은 배달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관계 없이 배달수수료 전액 면제

이벤트 기간: 2018. 6. 1(금) ~ 8.31(금) / 배달 가능 지역: 서울 및 경기도 분당



YES 3. 짜릿한 경품추첨

KB 영업점에서 환전한 개인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건당 USD 500\$ 상당액 이상 / 서울역 환전센터 제외

행운상: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권 (1명) / 힐링상: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100명)
추첨일자: 2018. 9. 11(화) 예정 / 당첨발표: 2018. 9. 14(금) 예정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시장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에서 부담합니다.
* Event 3에 대한 추첨은 난수 추출 방식으로 별도 참여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1인당 1회만 응모됩니다.
* 행운상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고객님이 위치한 지점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 2018. 10. 12 (금)까지 경품 수령 거부 또는 연락처 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시 당첨 무효 처리되므로 경품 수령을 위한 은행 고객센터(휴대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링상 경품인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별도 통보없이 2018. 9. 18 (화)에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수탁업체(주)쿠팡이케이에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 발송업무를 위탁합니다. [제공번호: 휴대폰번호 / 대상업무: 이벤트 경품 발송]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청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스타뱅킹 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8.8.31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492호(2018.7.16)

8월까지 해외수주 27억佛... 하반기 호조세 이어갈까

(건설업계 2위)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

⑥ SK건설

상반기 승승장구... 무서운 성장세 IPO 지연 땀 투자지분가치에 영향

'기업가치 4조원, 국내 1위 건설사'

SK건설 조기행 부회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제시한 목표다. 상반기는 잘 달려왔다. 국내·외 수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실적도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라오스에서 건설 중인 댐이 일부 유실돼 공든 탑이 일순간 무너졌다. 사태 수습이 관건으로 보인다.

◆ 잘 나가던 상반기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건설의 2분기 매출액은 1조7954억원, 영업이익 989억원, 순이익 4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8%, 109.1%, 130.7% 증가한 것이다. 반기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 3조3022억



SK건설 빌딩. /SK건설

원, 영업이익 1573억원, 순이익 9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2.2%, 영업이익은 71.7%, 순이익은 180%나 늘어났다.

1분기에도 전년 동기과 대비해 각각 2.

6%, 32%, 180% 증가한 매출액 1조5068억원, 영업이익 583억원, 순이익 5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국내외 수주전(戰)에서 성과를 낸 영향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SK건설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주한 해외 사업의 계약금은 총 27억2921만 달러(3조826억원)에 달한다. 삼성엔지니어링에 이어 업계 2위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8440만 달러(1조5637억원·4위)의 수주를 따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SK건설은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1년간 해외 수주액인 21억1912만 달러(2조3935억원)를 넘어섰다.

국내 정비사업도 활발히 수주했다.

대전 중구 중촌동1구역 재건축(1527억원), 대구 현대백조타운 재건축(2383억원), 경기도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1940억원), 서울 노량진2구역 재개발(1087억원) 등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경기도 시흥대

아3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에서 시공권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 댐 붕괴 사고에 '당혹'

전반적으로 성장가도를 달리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졌다.

SK건설은 조기행 부회장을 비롯해 임직원을 파견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사고 여파로 각종 지표가 불안해졌다.

K-OTC에서 거래되는 SK건설의 가중평균주가는 6월 4만753원에서 7월 말 3만6155원, 이달 2만7735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1위 자리를 탈환한 지 약 3개월 만에 자리를 내줬다. SK건설의 시가총액은 7월 말 9453억원으로 전월(1조4054억원) 대비 32.7%(4601억원)나 감소했다.

주식시장 상장 지연도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SK건설의 지분을 보유한 SK(44.48%)와 SK디스커버리

(28.25%)는 내년 12월까지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SK건설을 상장한 후 보유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해외수주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을 보면 아시아가 중동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면 SK건설을 비롯해 전체 건설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SK건설은 코스피 상장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약재가 IPO를 지연시킨다면 SK의 투자지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해당 사태의 원활한 해결 여부가 SK건설의 해외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cou.co.kr

내달 전국 2만2646가구 분양

서울·수도권 1만3800여가구 '관심'

오는 9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264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에서만 1만38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아파트 공급 규모는 서울·수도권 1만3806가구, 지방 8840가구에 이른다.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8033가구로 광주 경인동 '광주금호리첸시아', 송내제1-2구역 재개발인 '래미안어반비스타', 원곡연립2단지 등을 재건축하는 '안산원곡e편한세상' 등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이어 지방은 ▲부산(2255가구) ▲경북(2069가구) ▲전남(1510가구) ▲경남(1231가구) ▲광주(1092가구) 등에서 새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다. '부산전포1-1e편한세상(1401가구)',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975가구)', 전남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640가구)' 등이 주요 단지다.

현재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집계된 미분양 물량 6만2050가구 가운데 5만2542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2016년 초만 해도 엇비슷했던 수도권·지방의 미분양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대구,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선 청약 경쟁이 뜨겁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과잉, 경기 침체가 주 요인이다. 또한 '뚝뚝한 한채' 보유 트렌드가 지방 아파트의 선호도를 떨어뜨려 미분양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번지에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해 '래미안리더스원' 59~238㎡,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7번지에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사당3구역푸르지오' 41~106㎡, 507가구 중 1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7호선 이수역이 가깝다.

삼성물산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427

(9월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지역	위치	아파트명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푸르지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고양시 토당동	능곡두산위브	
	광주시 경인동	광주금호리첸시아	
	구리시 수택동	구리수택향양수자인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안산시 원곡동	안산원곡e편한세상	
	경기	안양시 호계동	호계구사거리재개발 두산위브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가능2구역더샵
		평택시 현덕면	이안평택현덕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A5(공공임대)	
화성시 장지동		화성동탄2A82(행복주택)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전포1-1e편한세상	
부산		영도구 동상동	동상하리푸르지오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1,B1)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7구역두산위브
		강원 원주시 행구동	원주행구동골드클래스
	경남 거제시 고현동	e편한세상거제고현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포항시 장성동	e편한세상포항장성(A-2)	
	전남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	

주) 2018.08.02 조사 기준, 분양 계획은 건설사 사정이나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REPS

-32번지 일원에 '래미안어반비스타' 49~114㎡, 831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송내1-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497가구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38번지 일대에 원곡연립2단지재건축을 통해 '안산원곡e편한세상' 1322가구 중 3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안산시민공원, 화랑유원지 등이 근접해 있다. 지하철 4호선·서해선 초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2021년 KTX 초지역이 개통한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번지 일원 전포1-1구역주택재개발 부지에 '부산전포1-1e편한세상' 39~107㎡, 1401가구 중 8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동해선 부전역이 가깝다.

GS건설은 경북 구미시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B1-1블록에 '문성레이크자이' 74~138㎡, 975가구를 공급한다. 구포~생곡간 대체우회도로(2019년 예정),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예정)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인컴펀드' 시중금리+α 라더니...

신통찮은 수익률에 '9164억' 빠져나가

(최근 1년새)

채권금리 상승 '주춤'... 수익 부진

신흥국 리스크에 분산투자 기대 ↓

(인컴펀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6개월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수익률	2.03	-0.76	1.14	4.88	7.89	22.61
설정액	-4,470	-6,186	-9,164	193	-3,143	391

*13일 기준.

/자료=에프앤가이드

자본시장이 불안할 때 뜨던 '인컴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다.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인컴펀드는 배당이나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중금리에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중국의 무역 분쟁 확산, 터키 등 신흥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분산투자 효과에 대한 기대도 꺾이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인컴펀드에서 618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1년새에는 9164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탓이 커 보인다.

인컴펀드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기에 매매 차익은 물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부각돼 자금이

유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익률이 부진하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주요 투자처인 채권 금리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컴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0.76%로 떨어져 국내 채권형(1.41%)을 밑돈다. 1년 평균 수익률도 1.14%까지 떨어져 저조한 수준이다.

개별 펀드 가운데 KB이머징국공채인컴(채권)A, 에셋플러스알파로보코리아인컴1-1(주식), 한국투자증권고배당인컴솔루션(주훈)(A), 신한BNPI머징멀티에셋인컴(H)(주훈-재간접)C-A1,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주훈-재간접)A 등 대부분의 펀드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자산운용사도 '시중금리 +α'를 추구하는 다양한 인컴 펀드를 앞다퉈 출시해 자금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정작 최근 수익률은 은행금리보다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인컴펀드의 부진에 대해 채권 금리의 변동성을 꼽았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기조 변화와 G2 무역전쟁 등의 이슈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커졌다. 여기에 터키발 금융위기 등은 더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글로벌 인컴펀드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자금흐름이 이머징시장에서 미국 등 선진국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인컴 펀드 수익률 부진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미중 무역전쟁과 터키발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신흥국들의 환율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된 자금)가 많은 신흥국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20만명

월평균 연금액 38만7895원

최고 월 204만5550원 수령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

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369만6161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5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5171명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만3073명이고,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9명이나 됐다. 최고금액 수급자는 서울 거주자로 월 204만5550원을 연금으로 수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hj89@

부영그룹

육계 1만2500여 마리 쏜다

부영그룹이 15일 말복을 맞아 현장 근로자와 임직원에게 몸보신용 육계(肉鷄) 1만2500여 마리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더위에 지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육계는 관리소 및 현장 근로자, 그룹 내 전 계열사 직원 1만 여명에게 전달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올 여름 사상 최대 폭염에 현장 근로자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한 그릇의 보양식이 든든한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韓 노동소득분배율 10%p↓... OECD 중 낙폭 최대

(20년만에)

(20개국)

OECD 20개국 평균 2.07%p 하락
韓 소득분배율 66.12%→56.24%
2018년도 기준 환산금액 90조원

日 소득분배율 53.76% '가장 낮아'
영국은 5.46%p 상승한 63.25%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비교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월 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이전까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반등했지만, 그 이후 다시 60% 수준으로 반락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 하락해 분석대상 OECD 20개 회원국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독일에서는 5.39%포인트, 프랑스에서는 0.76%포인트 하락했다.

일본(1996~2015년)과 미국(1998~2015년)에서는 각각 5.67%포인트, 3.7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잠시 하락한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 1996년 57.79%에서 2016년 63.25%로 5.46%포인트 상승했다.

분석대상 OECD 20개국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015년 기준 53.76%)이었다.

이어 그리스(2015년 기준 55.28%), 한국(2016년 기준 56.24%), 이탈리아(2016년 기준 56.79%) 순이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법인부문에 비해 낮은 비율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된다는 가정을 적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

서에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기준 90조원 정도의 막대한 액수로, OECD 평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이론적 임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저축-투자-소비' 혹은 '총공급-총수요'의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면서 "노동소득은 총수요의 원천이며, 미래수요에 대한 전망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계소득 분배율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유사한 흐름

을 보여준다.

두 비율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하고, 임금삭감, 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파산 등으로 급격히 하락한 뒤 몇 년간 안정됐다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9~2010년 사이 또 한차례 급락했다. 이후 최근 몇 년간 반등했다가 2016년에는 반등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주 교수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가구별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개선율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만큼,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평범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15일 가뭄과 폭염이 지속하면서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14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 태백 매봉산 고랭지 배추가 폭염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에 작황부진·가축폐사... 추석물가 '비상'

전국 농작물 피해면적 2334.8ha
배추 10kg당 평균 도매가 42% 급등
경기미도·소매가 각각 29%·34% ↑
전국서 가축 폐사 544만 마리 달해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요 농산물의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목을 앞두고 시장에 내놓을 상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민이나 치솟는 물가에 걱정부터 앞서는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피해면적은 2334.8ha에 달한다.

추석 제사상에 오르는 사과, 포도 등 주요 과수농가의 피해가 1105.8ha로 가장 크다.

이들 농가는 한창 과실이 커질 시기에 열과, 낙과 등의 피해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채소류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태백과 강릉은 출하량이 톱 떨어져 배추 10kg당 평균 도매가가 평년(1만5000원)보다 42%(1만5000원)가량 급등했다.

폭염에 배추 수확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녹아버리는 꺾꽂이 현상이 속출한 것이다.

최근 50%가량 가격이 오른 무는 이맘때면 남자 성인 팔뚝만큼은 돼야 할 뿌리가 당근 크기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고, 그나마 5개 중 1개꼴로 물렁물렁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산지 농가의 전언이다.

수확 철에 접어든 감자의 경우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예년 수확량의 절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폭염 피해가 있는 과일 등 농산물 가격동향 점검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강원 평창지역의 감자 생산 농가는 3.3㎡당 10kg은 나와야 할 감자가 올해는 5kg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올 가을까지 감자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는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기미 80kg짜리 한 가마의 도매가격은 평균 18만6000원, 소매가격은 20만4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도매가격 14만4000원, 소매가격 15만2000원에서 비해 각각 29%와 34% 오른 것이다.

지자체와 농민들은 현재의 쌀값 감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여름 극심한 가뭄과 폭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화성시 거주 농민 김모(51) 씨는 "우리 동네의 경우 가뭄과 폭염으로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 생산량이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수확량 감소로 전체 소득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가축이 급증하면서 축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행안부에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가축 폐사 피해는 전국에서 544만마리에 이른다. 특히 밀집 사육 등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505만9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폐사한 닭 631만9000마리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닭의 폐사 원인이 대부분 조류인플루엔자(AI)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폭염 피해인 셈이다.

이 같은 영향에 올해 들어 안정세를 이어가던 닭값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육계(중품) 1kg당 소비자가격은 519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97원(8.2%) 올랐다. 올해 닭 소비자가격이 5000원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돼지(2만1000마리) 등 다른 가축은 폭염으로 인한 폐사량이 많지 않아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경기=김승열, 고성철 기자·연합뉴스

이산가족 실행위원 18명 금강산행

20일부터 2박3일간 '상봉' 행사
최종점검 차 북한 방문길 올라

북에 두고온 세 살짜리 딸을 68년만에 만나는 황우석씨, 돌아가신 부모 대신 여동생과 남동생과 상봉을 앞둔 박기동씨, 전쟁 중에 헤어졌던 큰 형을 68년만에 만나는 이수남씨...

오는 20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만나게 될 남측 방문단에 포함된 이름들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철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18명은 행사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15일 오전 금강산으로 떠났다.

남측 방문단 중 한 명인 황우석(89·서울)씨. 그는 딸 영숙(71)씨와의 재회가 실감나지 않는 듯 "3개월만 피난하고 고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나왔거든. 그런데 그게 68년이 됐어요. 세 살짜리가, 71세예요. 부녀상봉이라는 게 참... 소설 같은 얘기예요"라고 말을 전했다.

38선 이남 미수복지 황해도 연백군 출신인 황씨는 1951년 1·4 후퇴 때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홀로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

3개월만 몸을 피할 생각이었지만, 그 길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물론 처자식과도 생이별했다.

당시 딸은 겨우 세살배기. 워낙 어릴 때라 딸의 생김새는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해진 지 오래다.

"아휴, (기억) 안 나죠. 세 살 적이라... 이름 보고 찾아야죠. 이번에 가서, 강산이 7번 변했는데."

황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번 상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꿈에 그리던 가

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딸을 제외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모두 사망했다는 통보를 별도로 받았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박기동씨(82)는 여동생 선분(73)씨와 남동생 혁동(68)씨를 만날 생각에 떨었지만 동생들에 대한 기억이라곤 이름밖에 없다.

박씨는 "북쪽에 거주했던 부모님과 함께 상봉하길 원했으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번에) 형제들의 생사가 확인되고 상봉 의사가 있다고 회보가 돼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에 남겨진 막내 남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는 박씨는 여동생 선분씨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동생의) 손을 잡고 동네를 다녔다"는 추억의 한 토막을 끄집어냈다.

황해도 연백군(현재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없어짐)이 고향인 박씨는 3남 2녀 중 장남으로, 6·25 전쟁 발발 당시 서울에서 배재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보인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6살 위의 삼촌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던 중 전쟁을 맞았다.

고향에서 살던 박씨의 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강화군 교동면으로 피란을 왔지만, 부모님이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식량을 가지러 고향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영영 헤어지게 됐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이웃, 친척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수남(77)씨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둘째 형 종식(82)씨와 함께 북한의 큰형 종성(85)씨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의 상봉은 68년만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금강산을 방문하는 통일부 선발대 직원들이 15일 아침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국민공감'이 성패 좌우

“더 내고 덜 받아” 국민불만 팽배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론’ 등장
국민신뢰 높여야 연금개혁 이뤄져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료를 내는 나이를 연장하고 받는 나이를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지급 수준을 깎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으나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얘기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대통령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나서 논란을 진화하고 있지만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베일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을 벗기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개편안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다.

15일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을 예상해 현행 9%에 20년간 묶인 보험료율을 10.8~13%로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은 70%에 달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당시 체계를 유지하면 연금재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정부는 첫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살에서 65살까지 늦추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9년부터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3년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안됐다. 이후 보험료 인상을 뺀 개혁을 완성했다. 이 개혁이 이뤄지던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특히 20년 동안 어느 정부도 보험료에 손을 대지 못했다.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1997년 정부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보험료율을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반발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2003년에 이어 2006년에도 보험료율을 각각 15.9%, 12.9%로 올리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개편안이 마련됐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백지화됐다.

이렇듯 과거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깎는 방안으로 논의돼 온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령 개시 연령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되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오는 17일 오후 발표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서비스센터 찾은 BMW 차량들

광복절인 15일 오후 대전시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8만7천41대로 전체 리콜 차량 10만6천317대의 81.2%가 안전진단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운행중지 발표에 차량 안전점검을 미루던 차량 소유자들이 대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무죄에 “법원, 더 못믿겠다”

양승태 사법농단까지 비난 가중

“사법부 신뢰도 낮아 납득 어려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 비평 여론에 ‘사법농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미투(#MeToo)’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비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정부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대학원생 A(30)씨는 “김씨가 피해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교수 손에 미래가 달렸다

는 생각에 성폭행 다음날에도 출석한 나의 처지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며 “나를 포함해 이번 선고로 음식에서 용기를 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저앉을까봐 겁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안 전 지사를 무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지난달 31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같은달 법원이 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른 점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납득 못하는 시각도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범종·나유리 기자 joker@

‘애니멀 호더’ 막아라... 반려동물 사육기준 생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

사육공간·수의학적 처지 의무화 등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등 맹견 규정도

최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가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초 서울 마포구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고 유기견 수식 마리를 한 곳에서 키우다 이웃의 항의성 민원 끝에 십수 마리를 몰래 버린 사례가 있었다.

여러 선진국에선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는 부족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국도 고민해왔다. 캐나다 토론토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게 하고

있으며 호주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자를 처벌해 동물 학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가운데 애니멀 호더가 주로 내팽개치는 부분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 운동·휴식·수면 보장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면 신속하게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해 사육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하고, 애니멀 호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해 ▲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 가로·세로가 동물의 체장(體長·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

5배와 2배를 제공 ▲ 옥외에서 사육시 흙서·혹한·눈·비를 피할 쉼터 제공 등을 규정했다.

또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격리하도록 했다.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을 완화하고자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거나 “쉴 곳, 급이·급수 용기 내 분변·오물 등을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육 환경의 위생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맹견을 두고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으로 규정했다.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적시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금융사 업무보고서 142종 폐지... 효율·정확성 늘린다

금융회사들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업무보고서 142종은 아예 없애고, 166종은 보고주기를 기존 대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부담 경감과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보고서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감독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말 1703종이었던 업무보고서는 지난해 말 1864종까지 늘어났다.

먼저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142종은 폐지한다. ‘신탁계정수지 현황’(보험) 등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동일인 대

출한도’(금융투자) 등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들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금융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는 완화하고, 보고기한은 연장한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이 빈번하지 않아 주기가 길어지는 보고서는 166종이다. 저축은행의 ‘회사개황’, ‘사육 현황’, ‘연혁’ 등은 기존 월에서 분기 주기로 보고하면 된다.

보고주기와 감독·검사업무활용주기가 다른 보고서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은행의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와 금융투자(증권)의 ‘신용공여현황’은 기존 월에서 분기 단위로 주기가 바뀐다.

보고기한 내에 잠정치를 제출한 후 확정치로 수정했던 167종의 보고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한다.

여신전문사의 ‘연체(관리자산 현황)’, ‘카드회원수 현황’ 등은 보고기한이 기존 10일에서 한 달로 늘어난다. 또 회계연도 말 결산시에 한해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현황’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보고기한이 바뀐다.

이밖에 57종의 보고서는 서식 내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작성요령을 명확화·구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서 정비로 시중은행의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1780건에서 1550건으로 약 23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백화점, 명품·리빙에 '화색' vs 마트, 창고형 빼곤 '울상'

유통가 2분기 실적

백빅3 영업익·매출 나란히 상승세
이마트·롯데마트, 중국 사업 철수
창고형 할인마트는 의외의 성장세

주요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희비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실적은 주춤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번 2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7700억 원을 나타냈고 영업이익은 570억 원으로 42.5% 늘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 9.1% 증가한 4423억 원과 753억 원을 나타냈다.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4137억 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영업이익 역시 15.9%나 오른 420억 원을 달성했다.

롯데백화점의 매출 증가를 이끈 분야는 해외패션과 생활가전 부문이었고 현대백화점은 명품 부문과 리빙용품의 매출 증가가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점의 증축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의 실적은 좋지 않다. 이마트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매출



중국 롯데마트.

은 8.5% 증가한 3조9894억 원을 나타냈다.

이마트 측은 지난해 5~6월에 에어컨 판매량이 컸던 반면, 올해는 2분기가 지난 7월에 에어컨 등 여름상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마트의 실적은 주춤했지만,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온라인몰의 매출은 각각 27%, 18.1% 성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트레이더스의 경우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점에 걸맞게 차별



이마트 트레이더스.

화된 대용량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가를 일반 할인점 대비 8~15% 가량 저렴하게 책정한 부분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최근 이슈가 된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 등 자체 PB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 또한 집객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1997년 상하이에 1호점을 낸 이후 현지 매장을 26개까지 늘렸지만, 실

적 부진으로 누적 적자가 늘어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2007년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을 방해받아 지난해에만 2686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사드 딛고 영업익 20배 쾡쾡

(1550억원)

상반기 실적

매출2조7000억 전년비 29% 증가
최대 실적 기대... 온라인 실적 견인

롯데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사드 보복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올해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년 상반기 매출 2조7009억 원, 영업이익 155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단 부산점과 김해공항점은 산란도호텔 법인으로 이번 실적 수치에서 빠졌다.

호텔롯데는 이번 공시는 K-IFRS 1115호 도입에 따라 특정원가(직매입을 제외한 일부 상품의 원가) 등이 제외된 매출 변경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전체 매출은 2조7009억 원으로 동일 회계기준 적용 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다. 이중 국내 매출은 2조603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다. 대리구매상(다이공)의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인천공항점 일부 매장 철수로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면서 시내점 및 온라인면세점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한 덕분이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브랜드 광고 캠페인인 '남' 캠페인을 통해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고객 유치를 통한 내국인 매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동



롯데면세점 '남' 캠페인.

본점스타라운지에서 화장품 브랜드 VIP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시내면세점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온라인 면세점은 전년 대비 50% 신장했다.

전체 영업이익은 1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95% 신장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드보복으로 2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큰 위기를 겪었지만, 올해 사드위기 이전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국내 점의 온·오프라인의 경쟁력을 강화 및 인천공항임대료 절감과 해외점의 안정적인 운영이 상당부분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해외사업은 전년 대비 60% 신장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 동경 시내점이 전년 대비 72% 신장하고, 베트남 면세사업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흑자를 달성하는 등 상반기 해외점 매출이 970억 원을 기록해 올해 2000천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 7개점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 베트남 및 기타국가 추가 출점을 검토 중이다. /신원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 모습.

/연합뉴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반응 엇갈려 기존 면세점 타격 vs 新사업 발굴 기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면세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강화를 위한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한정적이고, 내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늘리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100평(331㎡)가량의 작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업계와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대형 면세업체는 시큰둥한 반면, 중견·중소 면세점은 환영하는 눈치다.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은 인천 중구 청사에 마련된 다목적 체육시설 인천공항 스카이드론 준공식 기념사에서 "인천공항에 마련된 입국장 면세점은 대규모시설인 출국장 면세점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약 100평 면적에 관광객들이 지인 선물용으로 살 수 있는 담배, 초콜릿, 술 등 10가지 품목들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많은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공사는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 수익은 전액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에 환원될 수

항공업계·출국장 면세점

매출·기내면세품 감소 등 '시큰둥'

공항공사·중소 면세점

새로운 사업·경쟁력 강화 등 '환영'

정보보안기관은 반대에 무산됐다.

여행객 다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 시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여행 내내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업계와 출국장 면세점을 주도하는 대기업 면세점의 시선은 굵지 않다.

이미 시내 면세점 포화 상태인 데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기존 면세점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계산에서다. 항공업계도 기내 면세품 구입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면세점 매출 규모는 연간 3300억원 규모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달가운 입장이 아니다.

반면, 중견·중소 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특색을 확보했지만, 대기업 기세에 눌려 매출이 형편없었던 지라 입국장 면세점이란 새로운 사업 기회에 기대는 거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개점된다면 기내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는 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면세점 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지금은 소형 오피스 · 오피스텔이 투자자대세!

**실투자금
1억에 4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KTX(2021년)·송도 테마파크(2020년)
교통프리미엄과 4만 임대수요 최대수혜지!**

청량산과 서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송도 옥련동 최고의 명품 조망권과 송도테마파크 미래비전을 담은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PARKVIEW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ChosunMedia 조선일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노려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통상 전용면적 60㎡ 이하를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60㎡ 이상 중형 오피스텔은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내부 설계나 입주 편의시설이 크게 떨어져 수요자 확보가 쉽지 않다. 월세 수익률도 소형보다 낮다. 예를 들어 전용 23㎡와 27㎡가 있다면 23㎡를 택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격은 27㎡가 조금 더 비싸겠지만 준공 후 임대료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용 60㎡ 이하의 세제 혜택도 있다.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득세가 200만원 넘으면 85% 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18년 0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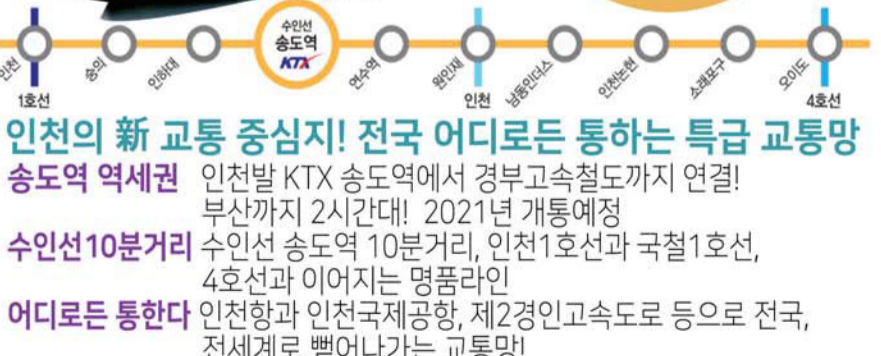
- 옥련동 최고 조망권 확보 분리형 1.5룸/2룸
- KTX·수인선 더블역세권 인천의 교통중심
- 놀이시설 워터파크, 호텔 등 송도테마파크 계획
- 희소성 높은 소형평면 공실률 걱정 ZERO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2021년)
KTX
부산까지 2시간!

- 오피스 96실
- 오피스텔 112실
- 상가 16실

송도의 교통특권과 미래비전을 먼저 누리다!

7200억원 투입, 송도 테마파크 2020년 개장 예정! 놀이공원, 워터파크, 리조트 등 멀티 콘텐츠 테마파크 49만㎡ 규모, 2020년 예정, 업계종사자 4만여 임대수요 확보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하루이용객 2~3만 예상되어 인천 상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인 2021년 예정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단지, 송도 클든하버 쇼핑,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레저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로 복합화 된 럭셔리 관광휴양단지	문화관광시설 중심지 인천상록자전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가천박물관, 송도 국제신도시 등 연간 30만명 관광객 유입
인천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2019년 예정) 2016년 착공 2019년 준공예정, 총 40만평 규모(항만시설 22만, 지원시설 18만)	가깝게 누리는 생활 인프라 송도 꽃게거리 바로 앞, 반경 2km 이내에 CGV, 롯데마트, 도서관, 해양공원, 은행 등이 위치



합리적인 분양가에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까지!

- 빌트인 세탁기
- 빌트인 냉장고
- LG 43인치 TV
- 전자동 상면식싱크대
- 전기쿠팡
- 전차량인저
- 다시도어
- 전기책상
- 빌트인 세탁기
- 빌트인 냉장고
- LG 43인치 TV
- 전차량인저
- 다시도어
- 전자동 상면식싱크대
- 전자동 상면식싱크대
- 전자동 상면식싱크대

문의 전화 1899-6333

이용섭 광주시장 내년 국비확보 ‘구슬땀’ “광주세계수영대회 국비 증액 요청”

국회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만나
광주형일자리 등 주요사업 설명
정부의 광주 관심요청 등 ‘분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면담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끝난 후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일자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비 추가 지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구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 는 현재 광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취임 후 10여 일 만인 7월10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국비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 윤병태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과 면담하고 2019년도 국비지원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에는 국회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당면한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으며, 간담회 직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

라 면담하고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더불어 8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13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시도지사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역 현안사업과 정부 예산정책, 내년도 국비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불벌더위에 참깨터는 농민

불벌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8월 23일)를 여드레 앞둔 15일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수촌 마을에서 한 농민이 수확한 참깨를 털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오는 23일쯤이면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가평군 “물놀이 조심 또 조심” 올해만 10명 숨져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수상레저시설과 강가에서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이따라 발생하면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안전대책이 급속히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5시경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물놀이하던 A(23)씨가 물속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상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돼 119에 의해 후송됐으나 숨졌다.

또 지난 5일 가평경찰서와 주민에 따르면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물놀이하던 B(33)씨가 숨졌다. 같은 날 청평면의 모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C(73·여)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같은 달 14일에도 상면의 모펜선 수영장에서 E(3)남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계속 사고 발생해 각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고성철 기자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디자인·시설개선 본격화

광주시 북구의 말바우 시장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고객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개발과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말바우 시장은 2만평 규모의 공간에 500여개의 상점이 운영 중에 있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방문을 원하는 상점의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는 컨설팅실 시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억 7000여 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미디어보드, 아케이드 감성조명, 서비스 디자인 등 안전하고 찾기 쉬운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외부에서 시장으로 오는 길, 시장 내 안내판, 주차장 진입로 표시 등 웨이 파인딩과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



치를 파악하고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안내 사인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만남의 광장 내 햇빛 가림막, 제1·2주차장 앞 쉼터 의자에 대형 천차일 및 아케이드 구간별 LED 감성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전통시장만이 가진 특성과 다양한 문화,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경기도 농산물 가공품 코엑스에서 만나세요”

경기농기원

‘한가위명절선물전’ 19일까지 진행
14개업체 참가·100여개 제품 전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 경기도 농산물 가공제품을 홍보한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이나 명절선물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14개 업체를 선발한 농기원은 명절선물전에서 기업, 백화점, 마트 상품기획자, 유통바이어, 단체 구매담당자 및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물관, 주류관, 건강상품관 등 7개관에서 다양한 명절선물을 선보이는 행사로 치솟는 물가와 ‘김영란법’으로 명절선물을 고민하는 많은 소비자와 판로를 걱정하는 생산자를 위한 좋은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노라지청), 솔샘(전통주), 산채움(건나물), 아이비(허니와인), 가래울(참

기름), 이삭뜰(전통장), 조은이식품(배도라지청), 연천청산버섯(버섯식초), 한씨가원(들기름), 좋은술(전통주), 하네뜨치즈(치즈), 한경에프앤비(유과), 아름답(여주즙), 초담초담(뽕잎식초) 등 14개 업체가 참가해 총 10개 부스에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명절선물세트 100여개 제품이 전시 홍보된다.

특히 ‘김영란법’에 맞춘 3만~5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한편, 농기원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경기도 농산물 가공제품을 알리기 위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미용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우리원 기술이전과 창업지원을 통해 생산된 농가형 가공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



‘수원시 명예의 전당’

경기 수원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고 수원을 빛낸 8분을 헌액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내빈들이 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장성군 젊은 영농인재 발굴·육성 앞장

청년농업인에 사업 적극 지원

장성군이 젊은 농업인, 이른바 ‘청년연어’ 육성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이 22개 전남 시군 가운데 청년농업인 육성에 가장 많은 자체 추진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장성군이 자체 집계한 ‘2018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시군별 자체추진 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장성군은 자체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총 10개소에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지원했다. 이는 22개 전남 시군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장성군의 성과는 사업량 부문에서도 돋보인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사업량이 두 배나 많다.

장성군이 이처럼 청년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까닭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장성군은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성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성군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벌이



유두석 장성군수가 ‘2018 청년연어 농업인 창업계획 발표평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는 자체 사업도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 창업 농장 조성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등 6개에 이른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반응도 뜨겁다. 올해의 경우 당초 5개 농장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10개 농장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장성군 농업의 미래가 청년연어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지원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지역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남 장성=고성철 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간편하고 든든하니까요”... ‘스나킹’에 빠진 직장인

(Snacking·간단한 식사)

더부룩하고 무거운 점심식사 대신 산뜻한 한끼로 시간·건강 ‘두토끼’ 분짜라분, 베트남식 샌드위치 등 간편·건강식 메뉴 잇따라 출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나킹(Snacking)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식후에 졸음과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을 유발했던 무거운 점심식사 대신, 빠르고 간편한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함으로써 주어진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나킹 트렌드에 발맞춰 간편하지만 건강한 식사 메뉴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식후 졸음과 더부룩함을 유발했던 무거운 점심 식사를 벗어나 건강하고 산뜻한 음식으로 점심 힐링 하고 싶다면 맛과 포만감, 건강함까지 다 잡은 스나킹 메뉴에 주목하자.

간편하지만 퀄리티가 우수한 메뉴를 찾는다면 종합외식기업 SF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베트남음식 전문점 ‘분짜라분’



/판다익스프레스



/분짜라분

에서 새롭게 선보인 ‘그릴드 비프 반미&웨이’를 추천한다. ‘그릴드 비프 반미 & 웨지’는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맛의 퀄리티는 물론, 푸짐한 양까지 자랑하는 정통 베트남식 샌드위치다. 쌀로 만든 바삭하고 고소한 바게트빵에 직화로 구워낸 차돌양지와 양상추, 반미 특제 소스를 넣어 현지의 맛을 살렸다. 샌드위치 주문시, 사이드 메뉴로 제공되는 웨지감자까지 곁들이면 성인 남성의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을 만큼 푸짐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 가볍게 점심을 해결하고 싶다면 건강하고 다채로운 속재료와 소스만으로 맛을 낸 샐러드가 제격이다.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푸드셀렉스 ‘딘 앤델루카’는 여름을 맞아 프렌치 스타일의 ‘D&D 니수아즈 샐러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D&D 니수아즈 샐러드’는 구운 연어와 브로콜리, 올리브, 달걀과 함께 채

소를 곁들인 프랑스 니스 지방풍의 샐러드 메뉴로, 여름철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비타민 보충에 좋은 채로들이 듬뿍 들어 있어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를 찾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점심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이른바 ‘데스크톱 다이닝족’을 위한 테이크아웃 스나킹 메뉴도 있다.

각자의 입맛이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샌드위치는 데스크톱 다이닝족에게 안성맞춤 메뉴다.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썬브웨이’는 8가지 채소를 기본으로 다양한 속재료와 소스를 버무려 간단하지만 포만감을 즐길 수 있는 영양만점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된 ‘타키 베이컨 아보카도·스파이시 이탈리아 아보카도·베지 아보카도’ 3종은 열량이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를 넣어 건강함을 더했다. 또한 빠른 주문과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장점 덕분에 데스크톱 다이닝족이 선호하는 스나킹 푸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스나킹 푸드 중에는 프리미엄 정통 중식 메뉴도 있다. 미국 최대의 중식 브랜드 ‘판다익스프레스’는 음식의 사이즈부

터 재료, 사이드 메뉴 등 원하는 레시피만 골라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문 절차를 총 3단계로 구성해 사이즈부터 메뉴 구성까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중국식 팬인 ‘웍(Wok)’을 사용해 불맛과 향을 살려 재료를 신속하게 볶아내는 판다익스프레스의 대표 메뉴는 오렌지 치킨, 쿵파오 치킨, 허니 윌렛 쉬림프, 상하이 스테이크 등 19가지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고 섭취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점심을 빠르게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메뉴들이 지속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딘앤델루카의 ‘니수아즈샐러드’/신세계푸드



무더위, 데미소다와 날려버리자!

동아오츠카가 오는 8월 말까지 부산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 야외 테라스 가든에서 ‘데미소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한다.

/연합뉴스

미활용 단체표준 346종 ‘대대적 정비’

중기중앙회 25년 만에 단행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

(2018.7.31기준·2,589종 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 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

구분	조치완료				조치예정			
	개정	적부확인	폐지	합계	심의대기	연기요청	폐지대상	합계
표준수	20	455	74	549	609	1,085	346	2,040
단체수	8	21	5	34	30	28	32	90

*폐지대상(346)=적부확인대상(2,589)-확인완료(455)-개정완료(20)-폐지완료(74)-연기신청(1,085)-심의대기(609).

*적부확인 미실시(10년 이상 단체, 649종(20년 이상·13개 단체, 476종)/10년 미만: 72개 단체, 1,391종).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정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등록단체와 협의해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선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선 개정 20종, 적부확인 455종, 폐지 74종 등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슬림해진 직수 정수기... 업소·사무실에 제력

코웨이 ‘시루 스탠드 정수기’

코웨이는 업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크기는 줄이고 냉수는 늘리는 한편, 정수는 직수 방식으로 무제한 용량을 구현한 ‘시루 스탠드 정수기(CHP/CP-5700R)’ (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자사의 대용량 스탠드 정수기와 비교해 사이즈를 약 6cm 줄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반면 냉수와 정수 용량은 크게 늘렸다. 냉수는 기존 대용량 스탠드 정수기 대비 1L 늘린 7L의 대용량을 확보해 냉수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도 더 많은 양의 냉수 추출이 가능하다.

정수는 ‘CIROO 2.0 필터’를 바탕으로 직수 방식을 구현했으며 용량에 제한을 받지않고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CIROO 2.0 필터는 코웨이 가 세계적인 화학 소재기업 도레이와 공동 개발을 거쳐 특허출원한 필터로 머리카락 수만분의 1이



온물질까지 제거하는 ‘인텐시브 액티브 텐스 레이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 또한 기존 CIROO 필터보다 면적을 6배 늘렸으며 정수량은 30배를 높여 RO 멤브레인 필터임에도 불구하고 직수가 가능하다.

특히, 냉수를 추출할 때 정수 유입을 차단해 냉수가 미지근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용량 스탠드 정수기와 비교해 더 낮은 온도의 냉수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리하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추출구의 위치를 높였다. 또한 물 받는 공간의 높이를 대폭 늘려 사용자가 어떤 물병을 사용하든지 손쉽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렌탈로 구매 시엔 월 5만4900원(10만원 등록비 기준)이며 일시불은 199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카페베네 상반기 영업익 1.2억 3년 만에 ‘흑자전환’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반기 영업익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카페베네는 2018년 상반기 매출액 136억2700만원에 영업익의 1억2300만원을 달성했다. 반기 흑자로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 의미가 깊다.

특히 1/4분기 3억3000여만원의 손실에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4분기 4억5000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식음료 업계 성수기인 7월~8월을 맞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12일 기업회생 신청 이후 경영 효율화와 가맹점 매출 활성화 등에 주력하며 기업 정상화에 집중해 왔다.

/박인용 기자

SK매직 렌탈계정 145만 돌파... ‘2위 수성’

SK매직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렌탈 누적 계정 145만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 봄에 출시한 올인원 직수정수기, 올인원 직수얼음정수기, 모션 공기청정기, 도기버블 비데 등 신제품의 인기로 힘입어 1~7월 사이 렌탈 신규 계정이 30만을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렌탈 누적 계정 127만에서 18만 계정 순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매직은 올 한해 50만 계정을 새로 확보해 연초에 계획했던 156만보다 4만 이상 초과한 160만 이상의 렌탈 누적 계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SK매직 관계자는 “SK매직은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영시스템, IT 인

프라, 판매채널, 인력, 광고 등 미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고객중심경영을 기반으로 추진한 다양한 경영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로 나타나며 업계 2위 자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매직은 지난 2·4분기엔 1615억원의 매출을 올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도 기록했다. 이같은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약 67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팬덤 업은 유통업계... 흥행보증 '아이돌 마케팅' 뜬다

〈특정한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식품·패션·면세점 등 업계 전반 활발 팬덤 겨냥 아이돌 '굿즈' 본격 판매 탁월한 매출효과에 한류 인기까지

유통업계가 아이돌 마케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하고, 단독 상품을 출시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음료는 물론 패션·뷰티 브랜드와 면세점, 편의점 등 업계 전반에서 아이돌 마케팅이 한창이다. 프로모션 진행, 패키지 상품 출시에 이어 팬덤을 겨냥한 아이돌 '굿즈'(상품)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식품·음료 업계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를 디자인에 적용한 단독 패키지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아이돌들은 그룹 방탄소년단과 워너원이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글로벌 그룹으로 올라선 방탄소년단과 국내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워너원은 현재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코카-콜라의 올 여름 캠페인 모델로 기용됐다. 이와 함께 멤버 7명의 이미지를 디자인에 적용한 '코카-콜라 방탄소년단 스페셜 패키지'가 출시됐다. 또 한국아쿠르트 '골드브루 by 바빈스키 방탄소년단 스페셜 패키지'도 출시됐다.



한국아쿠르트 '골드브루 by 바빈스키 방탄소년단 스페셜 패키지'(왼쪽), 세븐일레븐의 동방신기, 레드벨벳 우산.



/한국아쿠르트·세븐일레븐

워너원은 빙그레 '슈퍼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슈퍼콘 포장에 워너원 멤버 개인의 얼굴을 각각 삽입해 팬덤을 겨냥했다. 10~20대 젊은 층을 공략하는 아이돌 마케팅은 매출 효과도 탁월하다. 빙그레 슈퍼콘의 경우 지난달 매출이 출시 직후인 5월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다. 6월 중순경 워너원을 모델로 기용한 뒤 매출 효과

를 본 셈이다. 아이돌 마케팅은 면세점에서도 적용된다.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한류에 익숙한 외국인 고객들을 매장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룹 엑소(EXO), 2PM, 슈퍼주니어 등 다양한 한류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최근 자사 모델들을 중심으로 한 웹드라마 '퀵메이커'를 제작해 선보인 바 있다. 특히 해외 시청자를 겨냥해 국문, 중문, 일문, 중문간체, 번체 자막 등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배우 전지현과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그룹 갓세븐의 팬팅을 개최한 바 있다. 신라면세점도 그룹 동방신기, 샤이니, 레드벨벳 등을 모델로 기용 중이다.

편의점에서는 아이돌 굿즈를 단독으로 출시하며 아이돌 팬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특성에 따라 생활용품 굿즈를 주로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워너원의 굿즈를 전국 점포에서 판매 중으로, 교통카드나 손선풍기, 우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탄소년

단 CU플러스티머니 카드, 치약, 칫솔 등을 선보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세븐일레븐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동방신기, 레드벨벳, 엑소 등의 굿즈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고품질로 한정판으로 선보이고 있어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하수경 세븐일레븐 비식품팀 담당MD는 "세븐일레븐은 지난해부터 편의점과 아이돌의 콜라보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용성은 물론 소장가치까지 겸비한 상품들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유럽에서 맛보던 도넛 복숭아를 현대백화점에서! 15일 오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납작한 모양의 '도넛 복숭아'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CU, 가맹점주 건강 지키기 두 팔 걷었다

'CU 건강 Life 지킴이' 본격화 치과·안과 등 4개부문 이용 가능

편의점 CU가 가맹점주의 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한 'CU 건강 Life 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CU 건강 Life 지킴이'는 전국의 CU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 상생·복지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는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주를 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복지 프로그램은 'CU 건강 Life 지킴이'가 유일하다. 'CU 건강 Life 지킴이'는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혜택은 스타프(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된다.

치과 치료의 경우 CU와 제휴를 맺은 전국 130여 개 치과에서 충치 치료부터 보철, 교정, 크라운, 임플란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항목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 등을 포함하는 통증의학과는 비급여 진료 항목



CU가 가맹점주의 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해 'CU 건강 Life 지킴이' 제도를 실시한다. /BGF리테일

에 대해 20% 할인이 주어지고 산부인과 역시 여성종합검진 비용 할인은 물론 자궁근종 등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안과에서는 30여 가지 안종합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 수술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60여 제휴안경점에서는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등 전 상품에 대해 10% 현장 할인이 가능하다.

BGF리테일 박희태 상생협력실장은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예비 신혼부부 잡아라" 백화점, 가을 결혼 성수기 마케팅 치열

현대·갤러리아·롯데백화점 등 웨딩 고민타파 프로모션 준비

곧 다가올 가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라면 지금부터 신경써야 할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혼수, 예물, 웨딩홀 등 결혼 준비로 올 여름이 부쩍 분주했었다. 이에 현대, 갤러리아 롯데 등 백화점들이 예비부부들의 고민을 한번 타파할 수 있는 웨딩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현대백화점은 웨딩시즌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현대백화점 웨딩 페어'를 진행한다.

먼저, 목동점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7층 문화홀에서 박람회 형태의 행사인 '더 웨딩 페어'를 연다. 행사에서는 가구·가전·주얼리 등 30여 브랜드의 혼수 상품 판매와 함께, 스튜디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컨설팅 회사 '듀오웨드'가 참여해 웨딩스타일링 상담, 스튜디오 촬영체험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교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의패션대전'을 열어 랑방·무이·막스마라 등 40여 개 브랜드의 수입의류 상품을 최대 60% 할인해 선보인다.



▲ 웨딩페어 상담 모습. /현대백화점
▲ 웨딩페어. /롯데백화점

또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웨딩 멤버십 '클럽웨딩'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예비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전 지점 9월 16일까지 한달간 '갤러리아 웨딩 프로모션'을 연다. 웨딩마일리지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총 6명(전점 기준)에게 강릉

씨마크 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역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전점에서 '롯데 웨딩페어'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가치소비에 중점을 뒀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웨딩홀과 여행 관련 프로모션도 준비해 '롯데호텔서울' 웨딩홀을 계약 시 식·음료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와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의 성향과 니즈를 감지해 선호하는 웨딩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이트진로 '참이슬' 미군부대 PX 입점

참이슬이 국내 미군부대 영내매점(PX)에 입점했다.

하이트진로는 미국 국방성 산하 미육공군 복지기구인 AAFES(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참이슬 납품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 평택, 대구 등 전국 약 20여 개 미군부대 PX에서 참이슬, 매화수, 자몽이슬, 청포도에이슬을 판매하고 있다.

참이슬의 미군부대 입점은 지난 2월, 일본에 위치한 AAFES 아시아-태평양 구매본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됐다. 현재까지 6개월간 참이슬, 매화수, 자몽이슬 등 판매량은 총 4만1000명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미군부대 납품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소비자 다변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일본 오키나와



및 괌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권의 미군부대는 물론, 유럽 지역과 미국 본토 부대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포스코대우, 글로벌 곡물 트레이더 '청신호'

베트남 최대 곡물기업 편통과 MOU

포스코대우가 베트남 최대 곡물기업 편통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곡물사업 확대에 나선다. 2020년까지 곡물 1000만톤(t) 체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곡물 트레이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쓰영 시 바 편통 회장과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통과 곡물 트레이딩(교역) 물량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베트남에 공급하는 사료 곡물 물량을 200만t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베트남 전체 사료 곡물 수입시장의 약 10%를 점유하는 규모라고 포스코대우는 설명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편통과의 첫 거



포스코대우는 14일 베트남 편통사와 곡물 트레이딩 물량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왼쪽)과 편통사 쓰영 시 바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래 이후 지금까지 120만t의 옥수수·밀·주정박 등 사료의 원료 곡물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산 쌀·돈육·가공육에 대한

수출 협력을 진행하고, 향후 배합사료의 제조·유통·미곡종합처리장 공동투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하우시스,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도산 안창호 기념관' 보수 지원

LG하우시스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산안창호기념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며 애국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LG하우시스에 따르면 도산안창호기념관은 독립협회에 가입해 자주독립과 국정개혁을 주장한 대중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신민회, 흥사단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선 안창호 선생의 생애 기록과 사진, 유품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이 위치한 도산공원에 는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해련 여사의 묘소가 있다.

LG하우시스는 1998년 개관 후 20년이 지나 노후된 기념관의 1층 전시실 및 지하 강당의 바닥재와 인테리어필름 등을 교체하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 관람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80주기를 맞아 새롭게 단장한 기념관을 통해 안창호 선생의 업적과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 계승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2015년부터 애국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현충 시설 개보수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 서재필기념관, 매현윤봉길기념관, 우당이회영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만해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등 총 7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했고, 국가유공자 및 국내외 참전용사 14명의 자택 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손태승 우리은행장(앞줄 왼쪽 세번째), 김우룡 동래구청장(앞줄 왼쪽 네번째), 장동출 동래구장애인협회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이 지난 14일 부산 동래지점에서 열린 '은행장과 함께하는 개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銀 부산 동래지점, 100주년 기념행사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부산 동래지점에서 '은행장과 함께하는 개점 10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장동출 동래구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공헌의 의미로 동래구장애인협회에 장애인전동휠체어를 기부하는 행사도 함께 했다.

우리은행 동래지점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 상인이 주도하던 시대에 부산

지역 상인에게 금융을 지원할 목적으로 1918년 설립돼 100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기념사에서 손태승 은행장은 한세기 동안 우리은행 동래지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함께해 온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동래구장애인협회에 장애인전동휠체어 5대 구입자금을 기부했다. /양상미 기자 smahn1@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에 있는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김창성 LG하우시스 CHO 상무,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장(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재개관식을 위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늘의 운세 8월 16일 (음 7월 6일) <http://www.saju4000.com>

<p> 쥐 48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0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72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84년생 오늘은 양보와 희생이 미덕인 날.</p>	<p> 말 54년생 심신이 고단하나 재물 운은 있다. 6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78년생 뒷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날이다. 90년생 꽃이 만발하니 마음도 싱싱해지고 기쁨을 못 잡는다.</p>
<p> 소 49년생 바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온다. 6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자. 7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5년생 오랜 친구가 형제보다 낫다.</p>	<p> 양 55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67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픈 마음이 든다. 79년생 만나서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91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p>
<p> 호랑이 50년생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62년생 명에는 높아지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하루. 74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 86년생 약점은 말하는 순간 더 크게 변해 버리는 법.</p>	<p> 원숭이 56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68년생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명심하고 양보하는 것도 좋다. 80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92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을 살피라.</p>
<p> 토끼 51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웃고 우산이 필수. 63년생 자식이 제 배필을 데려오니 흡족하다. 75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8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p>	<p> 닭 57년생 주변 사람과 의견 차이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69년생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피하라. 81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93년생 고집을 피우면 가족도 외면.</p>
<p> 원숭이 52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64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76년생 마음먹은 대로 직진. 88년생 산도 좋고 물도 맑으나 편하게 살 것은 못 되니 마음이 아프다.</p>	<p> 개 58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를 준다. 70년생 상대방을 칭찬하면 내 게도 좋게 돌아옴을 명심. 82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94년생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p>
<p> 뱀 5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한 날. 65년생 병이 온 듯하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7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이다. 89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하니 좋은 평가를 받는다.</p>	<p> 돼지 59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71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3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95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밝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p>

김상회의 四季

인연법과 사주의 상관성

얼마 전에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진언을 소개한 적이 있다.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자매 사이의 인연법은 천륜이니 잠시 차치를 하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관계가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에 있어 교감하게 되는 인연은 나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인연을 선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식견으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 볼 수 없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항상 경계해야 할 일은 세상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해서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런 것이다. 우리 모두 돈 돈 돈 하면서 돈을 바라지만 큰 재물이 생겨도 자신이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면 돈이 변하여 마구니가 되어 재앙이 되는 일이 허다하다. 유명인이나 유명 연예인이 되기 위해 인기를 갈구하지만 막상 그렇게 갈망하던 유명인이 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행동적 제약이 유명세의 몇 갑절이 되는 것이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일어섰지만 그 대중의 기대를 계속 유지하고 부합하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어서 유명 연예인은 삶은 마치 유리집 속의 인형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만사를 들여다보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행과 불행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 진정한 행복이란 소욕지족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불가의 인연법에 의하면 오백생을 거쳐서 쌓은 인연이라야 부부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했다. 죽고 못 살 것 같은 연애를 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들까지 낳고 잘 살다가도 인연법이 다하면 이런 악연이 어디 있나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없으면 당장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사랑을 쏟았던 자식들도 머리들이 크면 부모들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형제자매들 역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때조차 만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를 어찌 각박해진 시대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인연법의 오묘함이 사주명조를 들여다보면 형제간의 우애나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호오가 분명하다. 어느 시기쯤에 인연법이 다하거나 좋아지거나 하는 것도 읽을 수 있으니 역의 오묘함에 탄복할 뿐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2	8		7	1		
	7							5
	8							4
5	4		1			8	9	
		9			6			
	9	4		5		7	2	
8			2		4			3
			1	3	9			

								4
	4			1		8	7	
			4	3	7			2
	3	7			6		9	
6		8						3
	5	4			9			2
			6	4	8			9
	6			9		3	4	
								6

스도쿠 정답

7	9	8	6	5	1	5	2	4
6	5	7	4	2	9	1	8	3
1	2	3	8	5	9	7	6	4
4	1	9	5	8	7	6	3	2
6	8	2	9	1	4	3	7	5
5	7	4	2	6	1	8	9	3
2	5	7	9	6	8	4	1	5
9	6	1	7	8	2	5	3	6
8	4	6	1	2	5	9	7	3
9	8	2	5	4	6	1	7	3
4	7	9	1	6	2	5	9	8
6	1	5	8	7	9	4	2	3
8	2	9	6	1	4	3	5	7
5	4	3	7	2	1	8	6	9
1	6	7	9	8	5	4	2	3
2	9	6	4	7	1	8	5	3
5	4	8	2	1	6	9	7	3
7	6	1	5	9	8	2	4	6

문제 제공= **보너스**

누구 위한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인가



**윤우중의
잠시 심포**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취지는 노동자, 서민, 중산층에게 보다 많은 임금과 보다 많은 여유시간을 제공해 경제도 살리고 삶의 질도 높인다는 것이었다. 월급이 올라가고 일찍 퇴근하면 저녁이 있는 삶, 보다 행복한 삶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렸으나 너무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의 반대에 피로까지 겹쳤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은 여유시간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수반됐다. 노동자들은 노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돈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줄어드는 임금을 항의하는 글들이 심심치않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수당에 의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한이 임금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취업포털업체 인크루트가 지난

달 말 557명의 직장인들에게 '주 52시간 실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 물은 설문에서도 이런 여론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설문에서 18.1%의 답변자들은 가장 큰 변화로 '임금 감소'를 꼽았다. 부업으로 알바를 시작했다(5.0%)는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취미활동을 시작했다(10.8%)거나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증가했다(10.6%), 운동을 시작했다(8.9%) 등의 긍정적인 답변도 많았지만 임금 감소가 가장 피부에 와닿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기대보다 부정적인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올해 7530원 인상의 충격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자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인상이 급격하며, 노동자는 공약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내년에 10만 3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3년 뒤에는 23만 3000개까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늘어나는 임금과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보다 '기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새 트렌드다. 이미 일부 햄버거점 등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라 대형 모니터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투자여력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 의욕적으로 펼친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 대기업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이 줄어 충격이 만만치 않지만 이들은 '노동조합'이란 세력이 보호해준다.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인건비조차 부담을 이겨낼 수 없어 연일 머리띠를 매고 시위 행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사장님'이란 애기를 듣는다.

지금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저그런 서민들이다. 시쳇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같이 머리띠 두를 사람도 없는, 폭염을 견뎌가며 버스와 전철로 출근하면서 하루하루를 개미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 종업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포스코건설,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 행사

포스코건설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지역아동센터 아동 170여명과 홀몸어르신 200여명에게 여름보양식을 제공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은 어린이들에게 치킨, 수박 등을 주고 일일 교사로 활동하며 학습지원 봉사활동을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홀몸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음악 공연도 했다.

/포스코건설



호반, 리솜리조트 회원모임과 상생협약 체결

(주)호반은 지난 14일 리솜리조트 회원모임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회원비대위)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회원비대위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회원 채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호반과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

상속과 증여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잡지**

이분들의 관심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생애에서 번 돈은 이번 생애에서 다 쓰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폴란은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이란 책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나머지는 편안하게 모두 다 쓰고 죽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죽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

고, 살아서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반대는 상속자, 수증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유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든 상관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증여받는 만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속의 원칙은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다음은 협의상속, 마지막이 법정상속입니다. 법정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배우자, 4순위는 형제자매 순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직계란 피(Blood)를 말합니다. 상속세가 무서운 것은 수역원에 이르는 돈을 6개월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에 LG그룹 회장님의 상속세 규모가 1조원이라고 하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에 상속개시시점과 동일하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강남 부유층들의 절세방법으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못하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방법과 배우자를 가입시켜 2차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나중에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가장 좋은 세대이다. 이들의 관심은 상속과 증여이다.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할 자산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더욱 많은 자산을 가족들에게 남겨 주기 위함입니다.

/오원금증권연구소 대표



동원그룹, 美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오찬

동원그룹이 15일(한국시간) 미국 피츠버그 셰라톤 호텔(Sheraton Station Square Hotel)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를 열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90명의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의 가족, 펜실베이니아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그룹



한샘, 말복 맞아 전국 대리점서 수박나눔 이벤트

한샘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전국 인테리어 대리점주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박 나눔 이벤트를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사 관계자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 수박을 전달했다. 이날 이벤트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100여개 한샘 인테리어 대리점에서 진행됐다. 한샘디자인파크 고양스타필드점에서 대리점 관계자, 본사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샘

인사

- ◆ **금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금융정책과장 신진창 △ 행정인사과장 유영준
-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장 최우혁
- ◆ **병무청**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유병호 △ 병역자원국 서승일 △ 병역자원국 석종성 △ 입영동원국 박재정 △ 입영동원국 이

연우 △ 사회복무국 박용준 △ 서울지방병무청 황민환

- ◆ **특허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호형 ◇ 부이사관 전보 △ 산업재산정책과장 정인식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이춘우 △ 산업재산인력과장 정성창
- ◆ **동국대 서울캠퍼스** △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장 전병건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종진
- ◆ **경산시(5급 전보)** △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 서부1동장 이한재 (6급 전보) △ 체육행정담당 김충렬 △ 세외수입체납담당 손광락

2227-7550

- ▲ 김필안씨 별세, 구자익·구자형(JCN울산 중앙방송 대표)·구자일(중앙미디어네트웍 대표)·구정화(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씨 모친상, 홍창수(홍한의원 원장)·김채규(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물푸레복지재단 이사장)씨 빙모상 = 15일 오전 8시 46분, 울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10-3598-9112
- ▲ 이연덕(전 천도교 울산교구장)씨 별세, 이지봉(포스코과장)·이지근(전 울산매일 편집국장)씨 부친상, 신현우(전 풍산금속)·김영일(전 한주 상무이사)씨 빙부상 = 15일 오전 4시, 울산시티병원 장례식장 VIP 2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10-6563-7113
- ▲ 조항의씨 별세, 환기 하나생명본부장·송기 삼성SDS상무·혜정씨 부친상, 안상민 AM전자대표 장인상, 김선희·김진영씨 시부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02-3410-3151

부음

▲ 조병희씨 별세, 박용신·상신(대림산업 대표이사)씨 모친상 =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충남 예산 화산추모공원, 0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124호

CJ제일제당 펫푸드 '오네이처 하루케어' 체험단 모집

CJ제일제당이 사료 위에 유산균을 뿌려먹는 신개념 토핑 펫푸드 '오네이처 하루케어'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네이처 하루케어' 체험단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19일까지 오네이처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오네이처 하



루케어' 20일분을 제공하며, '피부유산균'과 '장유산균'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제품 체험 후 우수한

후기를 남긴 체험단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국민대 영상디자인과 취업 강세... 제일기획·Mnet 진출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국내외 호평
영화·광고·모션그래픽 등 분야다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보완할 것”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졸업생들이 경쟁력 있는 실무능력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요 대기업 진출이 이어져 화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영상디자인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알찬 커리큘럼으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영상디자인학과 개설과 함께 입학한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큰 입지를 다진 대기업에 연이어 합격했다. 취업에 성공한 이학과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쌓아온 경험이 입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김주희(영상디자인학과 2010년도 입학)씨는 130: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올해 상반기 국내 최대 광고기획사 '제일기획' 제작부문에 아트디렉터에 최종합격했다. 재학 당시 뛰어난 감각을 바탕으로 각종 산학 프로젝트를 경험한 김씨는 “학과



1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일기획 아트디렉터에 합격한 김주희씨

수업을 통해 제작한 기말작품 및 졸업작품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자신이 관심 있는 장르로 즐겁게 창작하는 것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종훈(영상디자인학과 2011년도 입학)씨는 올해 상반기 공채에 'CJ ENM' 음악채널 Mnet 제작PD로 합격해, 음악 기획제작국 입문 교육과정 중에 있다. 'CJ ENM' 신입사원 공채 과정은 4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평균 500:1 이상의



우아한형제들 디자이너에 합격한 이정화씨

경쟁률로 입사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종훈씨는 “학과 설립 목적에 따라 설계된 교육과정 중 많은 부분들이 PD 직무의 실무 역량에 적합했다며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단편영화 제작, 창업 등 재학 당시 축적한 다양한 경험 덕분에 합격할 수 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화(영상디자인학과 2011년도 입학)씨는 ‘우아한형제들’ 디자인실 영상디자인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자이너



CJ ENM 제작부문에 합격한 이종훈씨

로 활동 중이다. 재학 당시 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산학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씨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이전에, 부지런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상상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학과 학생들의 취업 성공소식에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손영모 주임교수는 “실무형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영상디자인이라는 분야가 트렌드에 따라 변동이 큰 만큼 학과 커리큘럼이나 교육 인프

라도 그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현대사회의 핵심적 산업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기술-디자인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엔터테인먼트문화를 선도하고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학과에서는 디지털영상특수효과 - SFX, 3D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영상광고,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콘텐츠산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미술, 공연예술, 건축, 게임, 통신, IT, 공학 등 학제간의 융합으로 새롭게 탄생, 진화하고 있는 뉴콘텐츠엔터테인먼트분야 그리고 유, 무형의 총체적 문화서비스콘텐츠인 이벤트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컨셉아트, 연출가, 미디어아트, 공연예술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중앙대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앙대가 16일 오전 9시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310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제1회 HK+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함께 인공지능인문학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 소장 and 전은주 한국화법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창수 중앙대 총장,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또한 H.T. 쿵(H. T. Kung) 하버드 대학교 교수, 토니 빌(Tony Veale) 더블린 대학교 교수, 디터 쉐네커(Dieter Schencker) 지겐 대학교 교수 등의 기조발표



가 예정돼 있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인공지능인문학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제인공지능인문학회’ 창간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찬규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에 국내외 인문학자들이 함께 하는 심도 있는 학문 교류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받은 10명 중 9명 “신고 안했다”

왜? “절차가 복잡해서” “보복 두려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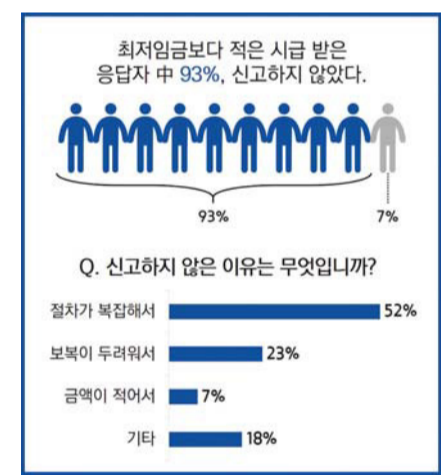
인크루트·알바콜 577명 설문조사

알바 경험자 14% 최저임금 못미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1위는 ‘절차가 복잡해서’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회원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02%다.

우선 전체 응답자 중 68%는 올해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4%는 정상적으로 일했지만, 최저임금



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응답자의 93%, 즉 10명 중 9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한 비율은 고작 전체의 7%

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1위는 ‘절차가 복잡해서’ (5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절차가 복잡해서’ (23%), ‘기타’ (18%), ‘금액이 적어서’ (7%) 등의 응답이 있었다.

18%를 차지한 기타 이유를 살펴보면 ‘주변에 다들 그렇게 받아서’, ‘독서실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나 ‘사전에 합의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10명 중 9명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며 “혹, 꼭 필요한 절차라 줄일 수 없다면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오진희 기자

부산대 ‘빅데이터’ 청년인재 집중양성 나선다

부산대학교가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선정돼 4차 산업혁명의 8대 분야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야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 사업은 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분야의 실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이다. 8대 분야는 인공지능, 블록체인/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다. 부산대는 이 중 ‘빅데이터’ 분야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산대와 글로벌테크산업진흥센터 컨소시엄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40명(2개 분반)을 선발해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7억4000만원으로, 교육생들에게는 매월 훈련수당(30만



부산대 전경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수 후 수수료 등이 발급된다.

교육생에게는 6개월 동안 약 960시간의 집중 교육이 시행되며,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산업체 경력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모집설명회와 현장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KAIST 세계 최초 ‘인공지능 월드컵’ 연다

KAIST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 정근모홀에서 ‘인공지능 월드컵(AI World Cup) 2018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공과대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브라질, 이란, 중국, 대만, 프랑스, 인도 등 총 12개국에서 모두 29개 팀이 출전해 AI 축구(23개 팀), AI 경기해설(4개 팀), AI 기자(2개 팀) 등 총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종목별로 우승팀을 가린다.

우선 AI 축구는 인공지능의 강화학습 방법(Q-Learning) 등의 기술로 축구 전술을 학습한 5개의 인공지능 선수가 전·후반 각 5분간 사람의 조작 없이 상대 팀 골대에 골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전은 대회 서버에서 자동으로 매칭(Matching)된 상대와 대결하는 롤링

업데이트(Rolling Update)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회 이틀째인 21일에 본선경기를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4강, 3-4위 결정전 및 결승전이 열린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미화 1만달러, 준우승 팀과 3위 팀에게는 각각 5000달러와 2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AI 경기해설 종목은 AI 축구의 경기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설명하는 분야다. 경기내용의 정확한 표현, 선수들의 움직임과 볼의 슈팅수에 따른 경기예측에 관한 해설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우승팀에게는 미화 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AI 기자 종목은 AI 축구 경기내용과 AI 해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기자대신 기사를 작성하는 분야다.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아낸



팀을 선발해 우승팀에게 미화 5000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회조직위원장인 KAIST 김종환 공과대학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게 이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grovana.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GMT
1547.1528

폭염 속 호텔은 가을준비중... 풍성한 패키지 '한가득'

쉐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
 '고 온 보드' 한강에서 만끽하는 가을
켄싱턴스타호텔·켄싱턴호텔 평창
 '어텔 패키지' 피크닉·글램핑 즐겨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폴 인 스위트' 애프터눈 티 세트



① 쉐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 온 보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②켄싱턴호텔 평창이 선보이는 글램핑 빌리지. ③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폴 인 스위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입주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텔들은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통해 일찌감치 가을 맞이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은 가을에 어울리는 패키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패키지나, 계절 내음이 담긴 음식 등 다양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쉐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텔 인근 한강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패키지 '고 온 보드(Go on Board)'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1박2일 객실권과 조식뷔페, 반포 한강공원에 위치한 세빛섬에서 출발하는 골든블루마리나 보트 2인 승선권으로 구성됐다. 오후 6시~9시까지 매 정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골든블루마리나 보트는 한강 여의도, 잠실 일대를 돌며 한강의 야경과 가을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글래드 마포, 여의도에서는 일년에 단 한 번 열리는 한강 불꽃 축제를 객실에서 관람할 수 있는 '불꽃축제 패키지'를 축제 당일인 10월 6일 선보인다. 패키지는 불꽃 축제를 보다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강부 객실, 와인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서울을 벗어나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도 있다. 강원권에 위치한 켄싱턴 스타호텔과 켄싱턴호텔 평창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텔 패키지'

를 선보인다. 켄싱턴 스타호텔에서는 설악산 일대를 트래킹하며 가벼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어텔 피크닉 패키지'를 선보인다. 또 켄싱턴호텔 평창에서는 전나무 숲 속의 글램핑 빌리지에서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어텔 글램핑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을의 맛을 담은 패키지도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테헤란로 파크 하얏트 서울 24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는 내달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가을 제철 식재료를 테마로 한 '폴 인 애프터눈 티'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판매되는 애프터눈 티 세트는 밤, 단호박, 꽃감, 고구마, 감 등을 활용한 메뉴로 구성됐다. 특히 디저트류는 장독대, 도토리 모양의 초콜릿을 비롯해 술방울 모양의 복숭아 버터 크림, 감 스콘 등 창의적인 메뉴로 구성돼 보는 재미까지 더해져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에서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폴 인 스위트(Fall in sweet)'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숙박과 함께 오페라 케이크 등 15가지의 디저트가 3년

트레이에 제공되는 '로비라운지&텔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길 수 있다. 모든 호텔 숙박객은 호텔 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이그제큐티브 라이브러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N서울타워와도 인접한 곳에 위치해 도심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도 '어텔 패키지' 2종을 선보인다. 멀리 떠나지 못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가을 피크닉 박스를 준비했으며, 한강 전망 라운지에서 가을에 어울리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구성도 마련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oo.co.kr

문체부, 장애인 체육센터 150개 신설

시설·지도자 늘리고 통합체육 확대

정부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적용,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체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3대 추진전략으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설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1%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2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우선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를 신규로 건립한다.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정

책을 시행키로 했다. 장애인 체육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수 개발,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등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도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특수교육대상 스포츠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을 도입한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2017년 622개에서 2022년 1300개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도입해,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18년 577명에서 2019년 800명, 2022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중증·발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인 1조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주 52시간' 한 달... 百 "저녁 고객 늘었다"

신세계백화점, 저녁매출 8.6%↑
 강남 '명품' vs 강북 '남성 패션'

명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다가오는 휴가 준비를 위해 퇴근 이후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방문했다. 야근이나 회식으로 업무도 낼 수 없었던 평일 저녁 쇼핑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개인적인 쇼핑은 평일 저녁을 이용하는 일이 잦아졌다. 셔츠, 반바지 등을 두루 둘러본 뒤 아이를 위한 옷도 구매한 시간은 오후 7시 30분. A씨는 "주말보다 상대적으로 한산하고 백화점이 사무실 근처에 있어 퇴근 이후 자주 오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평일 저녁에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시간이 달라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직장인 고객들로 인해 평일 저녁 시간 쇼핑 고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7월 한달간 평일 오후 6시 이후 매출이 시행 직전인 6월보다 8.6%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전체 매출 신



강남점 이벤트를 사진. /신세계백화점

장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백화점의 주 고객층인 30대와 40대 매출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보다 12% 증가하며 저녁 시간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사무실이 많아 직장인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서울 3개 점포(본점·강남점·영등포점) 역시 지난달 평일 오후 6시 이후 매출이 직전 달보다 5.8% 신장했다.

이들 점포의 평일 오후 6시 이후 매출 비중은 직전 달보다 2.9%포인트 늘어난 25.1%를 기록했다. 특히 백화점의 주 고객층인 30대와 40대 고객의 매출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보다 12% 신장하며 저녁시간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점포가 위치한 인근 상권에 따라 선호하는 장르도 다양하다. 강남 고객들은 명품과 여성복을, 명동을 중심으로 한 강북권 고객들은 남성패션, 생활·아동 장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근에 회사가 많은 강북, 특히 명동의 경우에는 남성복과 아동 관련한 장르가, 강남에서는 퇴근 이후 백화점을 찾는 인근 여성 고객들로 인해 명품잡화, 여성패션 소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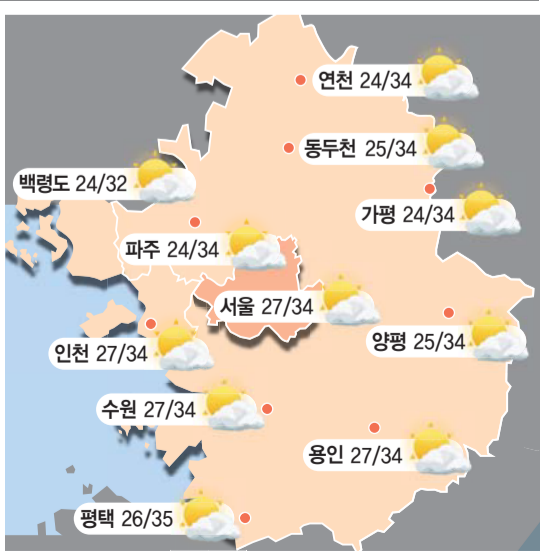
이에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은 남성과 여성패션 행사를 열고 퇴근하는 직장인 고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8월 16일
 음력: 7월 6일

수도권 날씨
 34~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운영

내달부터 8주간 금요일마다 진행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동궐도와 함께 하는 창경궁 특별관람'이 열린다. 이 해설행사는 오는 9월과 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운영된다.

국보 제249호인 동궐도(東闕圖)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궐 그림으로, 1826~183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약 3000여 그루의 나무 그림과 수

많은 건물은 물론, 다양한 과학 문화재 등이 부각됨(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는 방법)으로 그려져 옛 동궐(창경궁과 창덕궁)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창경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관람 행사는 현재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闕內各司) 지역의 군무를 담당하는 도총부(都摠府), 궁궐의 말과 가마 등 탈것들을 관리하는

내사복시(內司僕寺)와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헌경왕후)를 위해 지었다는 자경전 등에 대해 동궐도를 보며 전문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부터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1회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입장료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단, 해설 규모를 고려해 매회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행사 전날까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산업]
걸을수록 통신비 할인
6개월간 최대 7만2천원
“건강습관 유도”
05



[라이프]
호텔업계 가을맞이
쉐라톤·켄싱턴 등
패키지 ‘풍성’
L6



“日잔재 없애야” vs “아픈상처 되풀이 않도록 보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궁 내 방공호

태평양전쟁때 일본이 세운 잔해
‘철거 vs 보존’ 주장 논란 계속돼
임시개방으로 신청땀 관람기회



경희궁 방공호 전경.

/서울시

상전 터 옆에 방공호를 세웠다. 현재 서울
역사박물관 주차장에 있는 경희궁은 과
거 조선총독부 채신부와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방공호는 전쟁 때 통신시설을 갖춘 전
시사령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

다. 길이 100m, 폭 7m, 높이 5m 규모의 2
층짜리 터널식 구조인 이 방공호 내부에
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들어서 있
다. 건물 외벽은 3m 두께의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외부 폭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됐다.

방공호는 지난 2002년 식민시대 잔재
를 궁궐 한복판에 남길 수 없다는 여론과
경희궁 3차 복원계획에 따라 철거가 추진
됐다. 공사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무
한정 연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5일 “경희궁 방공호는 역사적으로 아
픈 상처를 기억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
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일제 침략의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지역 문화
재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경희궁 방
공호는 임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박물관
에 신청하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라며 “전시시설로 사용하려면 용도
를 변경해 대피시설 등을 개축해야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고 행정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전면공개는 어렵다”고 말했
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삼양2지구
개발사업 중 발견한 일본군 장교관사와
방공호는 2010년 복원 이후 친박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SH공사는 2005년 마포구 삼양 2택지
개발지구 조사 과정 중 일본군 관사로 추
정되는 건물 22개 동을 발견했다. 문화재
청과 SH공사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보
여주는 문화유산으로써 일본군 관사의

보존 가치를 인정해 건물 2개 동과 방공
호 1기를 복원, 문화재등록을 추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삼양 월드컵파크 지역
주민들은 “치욕스러운 역사의 흔적을 문
화재로 등록해 보존하지 말라”며 반대했
다. 결국 문화재 등록은 무산됐고, 10억원
을 넘게 들여 복원한 유적은 현재까지 흥
물로 방치된 상태다.

정성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
리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방공호 복원·보존은 지역의 문맥
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존
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삶의 방향 찾는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서울시, 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
29세미만 미취업청년 신청 접수



서울시는 청년들이 학업과 직무를 잠
시 중단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인 ‘갭
이어(Gap year)’를 주는 ‘청년인생설계
학교’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구직 활동에 몰려
자아 탐색과 주제적으로 삶을 설계할 기
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진로 모색
프로그램이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9~12월 서울자유
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청년교류공간 등
에서 진행된다.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

연과 커뮤니티 활동, 체험 프로그램, 인턴
십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

29세(1989~1999년 출생자) 미취업 청년
이다. 모집 기간은 17~27일이며, 희망자
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
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200명 중 140명은 일반 모집한
다. 나머지 60명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
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
해 우선 선발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인생설
계학교는 서울시 청년들이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라며
“본 프로그램이 든든한 지지자를 만나고
인생을 주제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
다.

/김현정 기자



주민 1천명 ‘한반도 평화’ 합창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송파구민 1천여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이 대형 한반도기를 펼
쳐놓고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주 수요일 ‘공원·조경’ 무료 인문학 강의

보라매공원서 명예교수 5명 재능봉사

보라매공원에서 공원과 조경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무료로 열린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재단법
인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함께 다음달부
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보라매공
원에서 ‘공원문화 아카데미’를 8회에 걸
쳐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원문화아카데미’는 국내 대학 조경
관련 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쳐 온 다섯
분의 명예교수들의 재능봉사로 진행된

다. 아카데미는 공원과 가드닝에 대한 주
제를 석학들의 풍부한 연륜과 강의 경험
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
행될 예정이다.

매 강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여 90분간
각 주제별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된
다. 서울대학교 임승빈 명예교수가 ‘공원
과 행복한 도시’라는 주제로 도시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에 대하
여 서울과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
다. 참여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한강 어류 모니터링 모습.

/서울시

‘자연성 회복’ 한강서 보호어종 2종 발견

한강에서 강주걱양태와 꺾정이가 발견
됐다.

서울시는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완
료한 이촌한강공원에서 서울시 보호어종
인 강주걱양태와 꺾정이를 관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생물
중 학술적·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 49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
정해 보호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일반 시민들로 구
성된 ‘이촌한강공원지킴이’는 지난 4일

한강 어류 모니터링을 진행해 서울시 보
호종 어류인 강주걱양태 16마리와 꺾정
이 1마리를 발견했다.

보호 어종이 발견된 장소는 한강자연
형호안 조성사업을 실시한 곳으로 자갈
과 모래 등이 퇴적돼 어류들이 서식하기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주걱양태와 꺾정
이의 발견은 한강이 자연 그대로의 하천
식생으로 복원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걷기·자전거 페스티벌 내달 30일 광화문광장 출발

자동차의 전유물이던 서울 도심에서
걷·자(걷기·자전거)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울시는 9월 30일 ‘2018 서울 걷·자 페
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남산3호터널을 지나 반포한강공원에 도
착하게 된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자전거
행렬이 먼저 광화문광장을 출발하면, 걷
기 행렬이 이를 뒤따른다.

걷기참가자는 광화문광장~남산3호터
널~잠수교~반포한강공원의 7.6km 코스
를 이동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광화문
광장~남산3호터널~반포대교~서초3
동사거리~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15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올해에는 걷
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퍼스널 모빌리티 부
문 참가자도 모집한다.

시는 걷기 1만명, 자전거 4800명, 퍼스
널 모빌리티 200명 등 총 1만5000명의 참
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2018 서울 걷·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현정 기자

“건강고위험군 시민 찾아 관리해드려요”

서울시 보건소 ‘건강돌봄팀’ 구성

서울시는 건강고위험군 시민을 위해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을 구성, 마을의사
등 전문인력 팀이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
돌봄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오
는 10월부터 성동·노원·은평·관악 4개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는 보건소
(지소) 건강돌봄팀이 지역 내 보건·의료·
복지분야 자원을 연계, 대상자 특성에 맞

는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관리하는 서비스다. 건강돌봄팀은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약사, 임상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료사
회복지사, 정신전문요원, 치과위생사, 방
문간호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
된다.

마을의사는 건강 포괄평가, 관리계획
수립, 지역 의사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
건강돌봄팀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임상
영양사는 영양상태 심층평가, 영양보충식
품을 지원, 관리하며 물리치료사는 방문
재활운동을 지도 및 관리한다.

/오진희 기자

SAMSUNG

Galaxy Note9

놀라움을 즐기자 지금, 갤럭시 노트9과 함께

팬파티에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에서
새로운 노트9을 만나보세요



갤럭시 팬파티

노트9과 함께하는 놀라움의 축제

8/14 부산, 8/15 광주, 8/17대전, 8/18 대구, 8/23~24 서울
검색창에 갤럭시 팬파티를 검색해보세요 (신청기간 8/1~19)

지역별 신청기간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https://www.samsung.com/sec/galaxyfanparty/>



갤럭시 스튜디오

기다리던 노트9을 가장 먼저 만져보고 즐기세요
놀라운 경험이 가득합니다

8/12부터 전국 60개소 오픈

<https://www.samsung.com/sec/galaxynote9/galaxystudio/>



갤럭시 온라인 체험존

온라인에서 즐기는 노트9의 모든 것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노트9을 만나보세요

<https://www.samsung.com/sec/galaxy-note9/experience/>